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East Sea and Dokdo in Old Maps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East Sea and Dokdo in Old Maps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00

팩스 02-2012-6186

www.nahf.or.kr / www.dokdohistory.com

초판 1쇄 발행 2010년 3월 2일

2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15일

도록제작 (주)푸른길

동북아역사재단, 2020

이 책에 수록된 도판의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2020,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s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Published b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HLife Bldg, 81 Tongillo, Seodaemun-gu, Seoul, Korea 03739

Tel +82-2-2012-6000 Fax +82-2-2012-618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East Sea and Dokdo in Old Map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사말

우리 재단은 2006년 9월, 바른 역사 정립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우리 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개설된 독도연구소에서는 독도 영유권 강화 및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동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독도연구소의 대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재단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소장된 고지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독도가 나타나고 동해 수역에 바다이름이 표기된 동서양 고지도 200여 점이 수집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그 사업의 성과를 전문가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고지도는 근대적 측량술과 지도제작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회화적인 지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문가 화가들이 지도제작에 참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자에 실린 40여 장의 아름다운 동서양 고지도를 감상하면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에 동해가 표기되는 것이 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인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To our readers,

Our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06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by promoting accurate and precise historical knowledge. Our Foundation has particularly devoted much attention to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Japan's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s and conducted various types of research and formulated diverse policies to effectively address such challenges.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in 2008, is notable for making various efforts to strengthen Korea's claim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widely promote the usage of the label "East Sea." Consequently, the Foundation was able to ascertain through various research projects that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by international law, Korean territory and that it is legitimate to use "East Sea."

Conducting research on the usage of Dokdo and East Sea in old maps of the East and West has been a principal research project for the Foundation. The Foundation continues to research on major old maps found in Korea and abroad, and has currently identified more than 200 maps which note Dokdo's exact location and use "East Sea."

This pamphlet aims to present the findings of our research to a wider public in a lucid fashion. "Old maps" refer to illustrated maps created before the advent of modern surveying techniques and cartographic methods. It is our hope that as you admire more than 40 different old maps from the East and West, you will be able to appreciate and understand why Dokdo is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Korean territory and why it is legitimate to call the body of water between Korea and Japan as "East Sea."

Thank you.

December 2020,
President,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 · 동해표기 그리고 고지도

2005년 일본은 1905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독도에 대한 도발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의 향수를 떨치지 못하고 100년 전의 일본을 그리워하며 기념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매년 2월이면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이면 독도에 대한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5, 6월이면 외교청서의 발간을 통해, 8, 9월이면 방위백서의 발간을 통해, 독도에 대한 도발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반복되면서 일본은 마치 예로부터 독도가 일본의 땅이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단사고는 없던 일도 사실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식민지배하에 있던 시절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동해' 표기를 지웠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도 새겨져 있는 '동해'라는 명칭을 일본은 '일본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1929년 바다 이름을 표준화하는 세계수로기구(IHO)의 총회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외교권이 없는 틈을 타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가입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국제사회의 저명 지도제작사들이 출판하는 지도들의 40% 이상이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일제 침탈의 흔적입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독도와 동해명칭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의아해하는 우리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의 독도연구소는 2010년 처음으로 이 책이 출판된 이후 2016년에 이어 올해인 2020년에는 두 번째 수정본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독도와 동해가 표시되어 있는 동·서양의 고지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일본의 고지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도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를 우리의 땅으로, 일본과 우리 사이의 바다를 동해로 인식하고 기록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독도와 동해표기에 대한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독도연구소장

Dokdo and East Sea in Old Maps

In 2005, Japan, reminiscing about 1905, began to issue new provocations about Dokdo. Japan is unwilling to discard memories about her imperial past and still misses the Japan from a century earlier, which is why she legalized a day of commemoration. That day, known as Takeshima Day, is celebrated every February.

Moreover, Japan not only intensifies efforts to incorporate content about Dokdo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and officially announces result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inspections of the textbooks every March. Japan also provokes Korea about Dokdo by publishing a Bluebook every May and June, and a White Paper every August and September. As Japan continues to repeat her claims to Dokdo, Japan seems to mistakenly believe that Dokdo was her territory from time immemorial. Groupthink can dangerously conflate fact and fiction.

In addition, while Korea was a colony of Japan, Japan erased Korea's notation of "East Sea" from international historical memory. Japan changed "East Sea," which is also inscribed on the Monument of King Kwang-kae-to. During a general conference of the IHO, held in 1929 to standardize the names of international bodies of water, Japan abused the fact that Korea had no authority to conduct her own diplomacy and registered the "Sea of Japan" as the official name for "East Sea." Since 1992, when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Korea has maintained an active public relations campaign to promote the usage of "East Sea." As a result, more than 40% of all internationally reputable cartography companies note "East Sea" alongside "Sea of Japan." Unfortunately, this practice is also a residue of imperialism.

Therefore,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response to Koreans and foreigners bewildered by Japan's arguments, continues to promote accurate historical knowledge. Ever since this book was first published in 2010 and the second edition came out in 2016, the Foundation has decided to publish a third edition in 2020.

This book introduces old maps from the East and West which note Dokdo and the East Sea. It also includes old maps from Korea and Japan. Contrary to recent Japanese claims,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Japan have long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and perceived and recorded the body of water between Korea and Japan as "East Sea." I sincerely hope that this book meaningfully supplements your study of historical labeling practices toward Dokdo and the East Sea.

December, 2020

Director, Dokdo Research Institute

동해의 아침

Morning of East Sea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의 전경

동도와 서도

A View of Dokdo

Dongdo and Seod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해

East Sea



현

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본해 지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관련이 있다. 서양의 고지도에는 동해 해역이 18세기까지 한국해 표기가 다수였지만, 19세기 중반부터는 서양인들이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해 표기가 증가하였다.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의 정착은 제국주의 사상이 팽대했던 1905년 러일전쟁이 계기였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해 지명의 정착 계기는 우리의 주권이 상실되었던 1920년대에 일본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 지명을 공식적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동해 고지도에서 주목할 사항은 첫째, 독일, 영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서양고지도에는 한국의 고지도보다 이른 시기에 동해 해역에 동해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서양에서도 동해 지명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서양에서 생겨난 한국해와 일본해라는 외래지명이 일본에 수입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19세기 말까지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은 일본의 토속지명에 해당하는 북해, 서해, 내해 등과 혼용되다가 20세기 초에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정착하였다.

셋째, 서양의 고지도에서 동해/한국해 및 한국해/일본해, 그리고 일본의 고지도에서 조선해/일본해 등의 지명 병기(併記)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명에 관한 국제규범을 원용, 한·일 양국간 동해 바다에 관한 단일 명칭의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동해/일본해 지명의 병기를 제안하고 있다.

The toponym “Sea of Japan,” used to designate the body of water lying between Korea and Japan, originated in the 20th century amid the growing colonial expansion and dominance of Imperial Japan. Up to the late 18th century, the majority of maps published in the West indicated this sea as “Sea of Korea(Corea).” It was not until the mid-19th century, when the West was actively engaged in trading with Japan, that “Sea of Japan” was beginning to be employed.

The name “Sea of Japan” was gradually taking root in Japan by 1905 in the wake of the Russo-Japanese war to be adopted as such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1920s when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and incompetent and unable to speak out diplomatically. In the absence of any opinions, let alone any protests, heard from Korea,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simply registered the region as “Sea of Japan.”

There are several points worthy of note in old maps relating to the East Sea. First, certain old maps, printed even earlier than some old Korean ones and available in such European countries a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Russia, labeled this area as “East Sea.” This attests that as far back as medieval Europe, this sea was considered the east sea of the Eurasian continent.

Second, Japan imported the exonyms “Sea of Korea” and “Sea of Japan,” since both originated in Europe. Until the late 19th century, the sea was referred to in Japan as the Japanese endonyms of “North Sea,” “West Sea,” and “Inner Sea.” It was not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that the Japanese decided to use “Sea of Japan” to help project itself as the only important power of the region.

Third, one can find many European old maps using two names in parallel, East Sea/Sea of Korea or Sea of Korea/Sea of Japan. In a number of Japanese old maps, again, Sea of Joseon and Sea of Japan were recorded side by side.

On the basis of these historical facts and map evide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ollow the international customary rules and practices to use both “East Sea” and “Sea of Japan,” until the two countries agree upon one name.



01

팔도총도(八道總圖)

한국, 이행 등, 1531년, 34.2×27.0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Paldochongdo

Korea, Lee Haeng, et al., 1531, 34.2×27.0cm, Housed in the Seoul Museum of History



팔도총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전도이다. 국가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요 산과 하천, 섬, 도(道)와 바다의 명칭 등 간단한 정보만을 수록하였다. 동해 지명을 지도에 처음 나타냈지만, 바다가 아닌 동해신(東海神)을 제사하는 강원도 양양에 동해(東海)라고 표기하였다.

Map of Korea included at the beginning of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Revised and augmented version of the survey of the national geography of Korea). This map contains the names of and brief information on major geographic features including mountains, rivers, islands, seas, and provinces. The toponym “East Sea” is first used in a Korean map. The name is located not on the water but at Yangyang in Gangwon Province, where rites to the god of the East Sea were performed.



02

아시아의 옛날과 오늘

독일, 필립 클리버, 1690년, 27.0×22.0cm, 미의회도서관 소장

Asia Antiqua et Nova

Germany, Philip Cluver, 1690, 27.0×22.0cm, Housed in the U.S. Library of Congress



독일의 지리학자, 역사가자인 클리버가 1624년 집필한 『세계지리학 입문』에 수록한 아시아 지도이다. 이 지도는 그의 사후 재판찬한 것으로 한국은 길쭉한 반도 형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형상이 명확하지 않다. 동해 해역은 라틴어로 동쪽에 있는 바다의 의미인 'MARE EOUM' 으로 표기하였다.

Map of Asia in the *Introductionis in Universam Geographiam* written by Philip Cluver, German geographer and historian, in 1624. This map was republished after his death. Korea is shown as an elongated peninsula but is not accurately portrayed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The East Sea is named “MARE EOUM,” literally meaning a sea in the east in Latin.



03

인도와 중국지도

영국, 존 세넥스, 1721년, 국립베를린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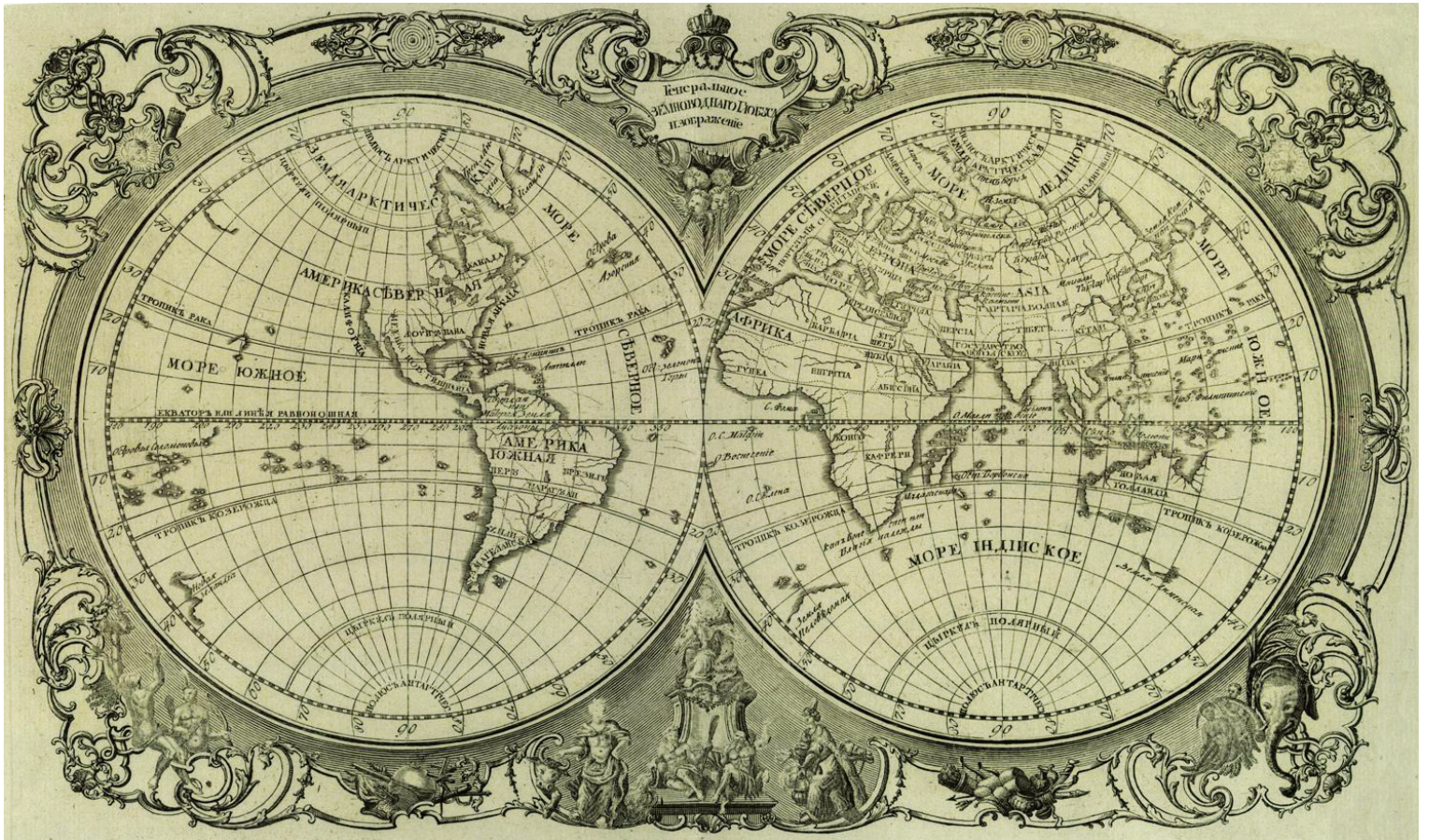
A new map of India & China from the latest observations

England, John Senex, 1721,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Berlin



영국의 왕실지리학자 세넥스가 1721년 제작한 인도와 중국지도이다. 인도 부분은 영국 동인도회사의 정보를 참조했으며, 중국과 한국, 일본의 지형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예수회 선교사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서양에서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로 동해 지명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ap of India and China by John Senex, royal geographer of England, in 1721. Senex used geographic information from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Jesuit missionaries to depict the geographic featur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is map shows that the West also used the name “EASTERN SEA” to indicate the sea east of the Eurasian continent.



04

세계반구도

러시아, 러시아제국과학아카데미, 1737년, 독일 괴팅겐대학교 소장

The World in Two Hemispheres

Russia, Russian Academy of Sciences, 1737, Housed in the Goettingen University



1737년 러시아제국과학아카데미에서 편찬한 『일반 독자와 학생들을 위한 지도첩』에 수록된 세계반구도이다. 동해 해역에 러시아어로 동쪽 바다를 의미하는 ‘Море Восточное’로 표기되어 있다.

Hemispheric map of the world included in the atlas published by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 1737. “Море Восточное” in Russian, literally meaning the sea in the east, is used to name the East Sea.



영국의 해리스(J. Harris)는 1705년 세계 각국의 탐험 정보를 수록한 책을 편찬했고, 그 후 우드워드(Woodward) 등이 수정 증보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이 지도는 영국의 조지 2세와 프랑스 루이 15세의 왕실 지도학자 보웬(E. Bowen)이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를 지도화한 것이다. 동해 해역을 ‘EASTERN SEA’로 표기한 것은 18세기 영국 왕실지도학자들의 관행이었다.

In 1705, John Harris edited a book, *A Complete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 consisting of information from world expeditions. T. Woodward and other cartographers later revised the book. A Map of Marco Polo’s Voyages (1744) produced by Emanuel Bowen, royal cartographer to both King George II of England and Louis XV of France, was included in the book. As seen in the map, naming the East Sea the “EASTERN SEA” was a popular custom among British royal cartographers in the 18th century.



06

서북계도(西北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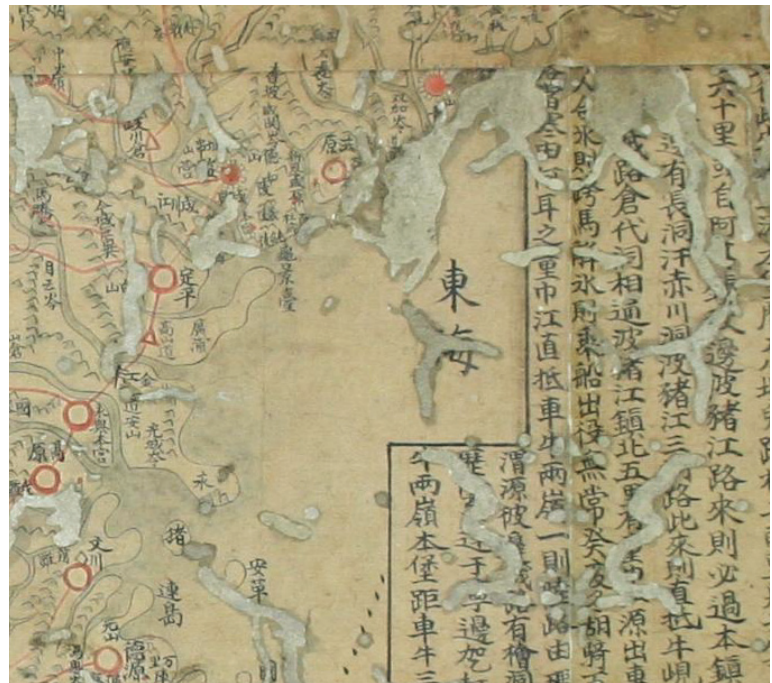
한국, 작자미상, 18세기 후반, 135.0×140.0cm, 서울대 규장각 소장

Seobukgyedo

Korea, Author unknown, Late 18th century, 135.0 × 140.0cm, Housed in the G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을 자세히 기록한 관방지도로 중국의 북경과 화북지방, 만주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 바다에 명칭을 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이 지도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 대한 명칭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즉 함경도 동측 해역에 동해(東海), 그리고 평안도 서측 해역인 황해를 발해(渤海)로 표기하였다.

Detailed map of the northern frontier of Korea, including Beijing, Northern China, and Manchuria. Usually, there was no sign of naming seas found in the map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map, however, clearly indicated the names of the sea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East Sea for the sea ea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alhae for the sea nor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07

아국총도(我國總圖)

한국, 작자미상, 18세기 후반, 81.5×151.0cm,
서울대 규장각 소장

Agukchongdo

Korea, Author unknown, Late 18th century,
81.5 × 151.0cm, Housed in the G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오행사상에 따라 5방위 색으로 군현의 명칭을 동쪽(강원도)은 푸른색, 서쪽(황해도)은 흰색, 남쪽(전라도, 경상도)은 붉은색, 북쪽(함경도)은 검은색, 그리고 중앙(경기도, 충청도)은 황색으로 적었다. 산과 하천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바다에는 작은 섬의 명칭까지 적었다. 바다 명칭은 동해(東海), 서해(西海), 남해(南海)를 적절한 위치에 표기하였다.

Followed by the Oriental Five Elements Theory, different colors were assigned to the names of Counties and Provinces. The cartographers used yellow for the central part of Korea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s), blue for the east (Gangwon Province), white for the west (Hwanghae Province), red for the south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and black for the north (Hamgyeong Province).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the realistic presentation of mountains and rivers and to naming offshore islands. The names of three seas, East Sea, West Sea, and South Sea, are located at appropriate sites in the respective seas.



08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

한국, 작자미상, 18세기 후반, 102.2×60.33cm, 서울대 규장각 소장

Cheonbadojido

Korea, Author unknown, Late 18th century, 102.2 × 60.33cm, Housed in the Gyujeo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 지도는 중국에 선교사로 체류했던 알레니(Aleni)의 『직방외기』(1623)에 수록된 만국전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제작한 것이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동일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세계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동해 해역은 마테오 리치가 사용한 일본해(日本海)가 아니라, 소동해(小東海)로 표기하였다.

Map produced in the late 18th century in Korea, based on the Chinese *Wanguo Quantu* (Complete Map of All Nations) included in *Jikbangoegi*, which was written by an Italian Jesuit missionary to China, Giulio Aleni. As with the *Kunyu Wanguo Quantu* (A Map of the Myriad Countries of the World) by Matteo Ricci in 1602, East Asia in this map is centered around China. To indicate the East Sea, this map uses “Little East Sea” instead of “Sea of Japan.”



09

울산부지도(蔚山府地圖)

한국, 작자미상, 18세기 후반, 19.3×25.4cm, 영남대 박물관 소장

Ulsanbujido

Korea, Author unknown, Late 18th century, 19.3×25.4cm, Housed in the Yeungnam University Museum



조선 영조 때 『영남지도』라는 책에 수록된 지도이다. 도로를 중시하여 대로는 붉은색, 중로는 노란색, 소로는 푸른색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경치를 강조하여 동해안에 혈암(穴岩), 태화 강변에 입암(立岩)과 오산대(鰲山臺) 등을 묘사하였다. 태화강이 울산의 중심부를 가로 질러 흐르고, 울산의 동남쪽에 바다 명칭을 동해(東海)로 표기하였다.

Map included in the atlas *Yeongnamjido*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 in the Joseon Dynasty. The cartographers put much value on roads with colors: red for primary roads, yellow for secondary roads, and blue for tertiary roads. They also emphasized topography by drawing shale along the east coast and rocks along the Taehwa River flowing through the center of Ulsan. The East Sea is located southeast of Ulsan.



10

대타타르지도

프랑스, 알랭 마네손 말레, 1683년, 14.0×21.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Grande Tartarie

France, Allain Manesson Mallet, 1683,
14.0×21.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말레는 프랑스 루이 14세 휘하에서 지도제작자, 요새건축가로 활약하였다. 그는 군사 기술과 세계지리를 집필하였다. 이 지도는 1683년 집필한 『세계지리』의 아시아 편에 수록된 것으로 타타르 지역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는 당시에 바다의 명칭이 세분되지 않아 동해와 인근 바다를 동양해(OCEAN ORIENTAL)로 표기하였다.

Manesson Mallet was a French cartographer and citadel architect under Louis XIV. He is best known, however, for the compendious *Description De L'Univers* (1683), a five-volume geographical, cosmographic, and historical work, which included maps of all known parts of the world. This map shows the Tartars region in his *Description De L'Univers*. He named the East Sea and its adjacent sea the “OCEAN ORIENTAL.”



11

중국과 일본이 위치한 아시아 동부지역지도

프랑스, 니콜라 드 페르, 1702년, 38.0×27.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La Partie Orientale de l'Asie ou se trouvent le Grand Empire des Tartares Chinois et celui du Japon

France, Nicolas de Fer, 1702, 38.0×27.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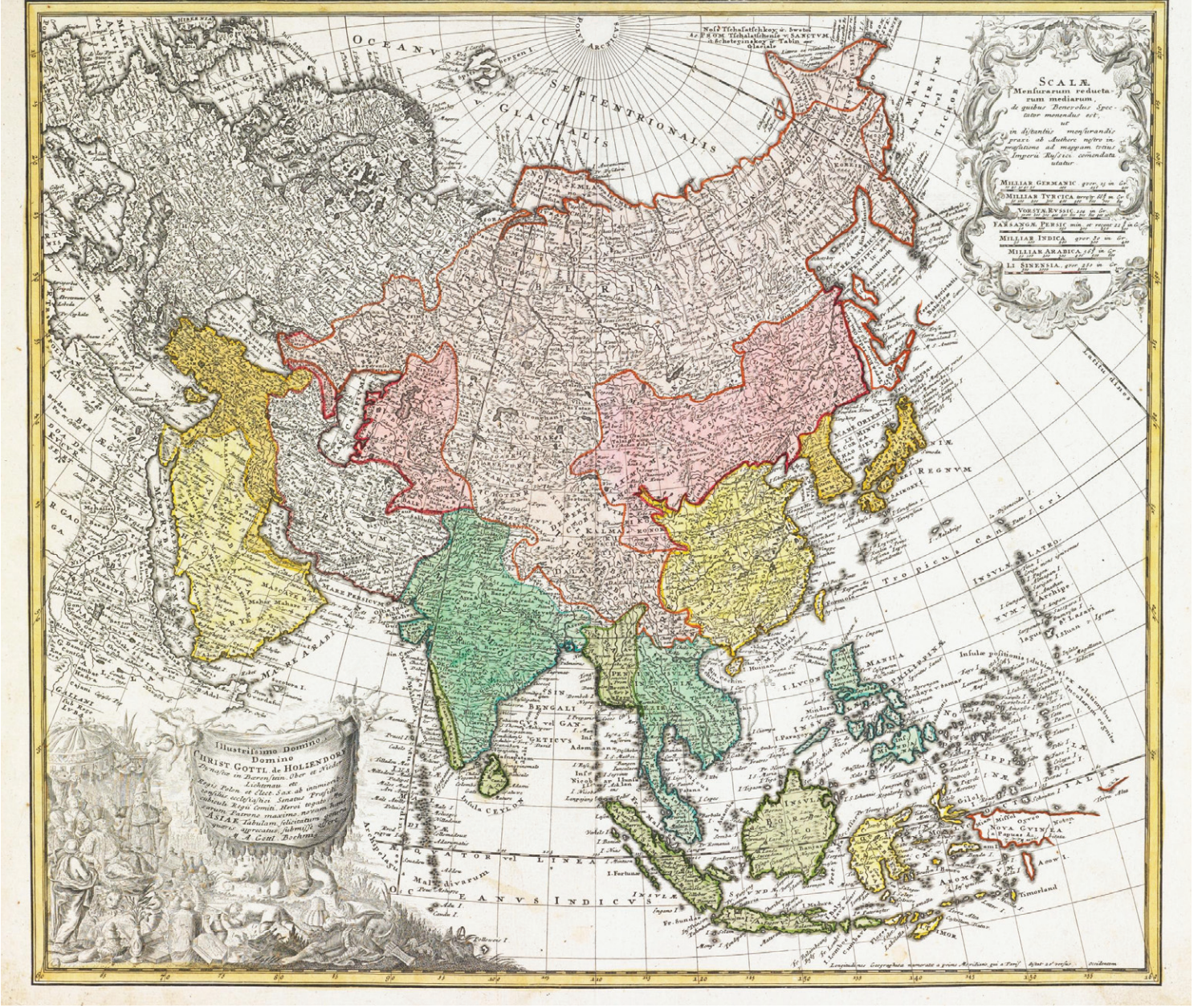


드 페르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왕실지리학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지도의 동해 해역에 “유럽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타타르 사람들이 동양(Orientale)이라 부르는 바다이다”라고 표기하였다. 당시의 타타르 사람들은 만주인, 러시아인을 가리킨다. 이는 동해가 한국 이외에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부르는 동쪽의 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Nicolas de Fer was an official geographer to both French and Spanish kings. In the map, he explained, “The East Sea is a sea called the Orientale Sea by Tartars, but it is unknown to Europeans.” Manchurians and Russians were called Tartars at that time. This fact indicates the name “East Sea” was commonly used to refer to the sea located in the east of East Asia.

ASIA secundum legitimas Projectionis Stereographicae regulas et juxta recentissimas observationes et relationes, exactis altitudinis, latitudinis, et directionibus, adhibitis quoque veterum monumentis et recentiorum itinerariis descripta, et in partes suas methodice IX divisa a IOH. MATTH. HASSIO M.P.P.O. nunc ex huius delineatione fabricata et auctore designata a M. Aug. Gottlob Boehmio Imperatoris Romanorum Norvici A. MDCCLXXXIII.

Carte de l'ASIE projetée Stereographiquement tirée des Relations et Observations contenues dans les voyages modernes, de même que dans les monuments des anciens corrigée de tout ce qui peut être la faiblesse et dirigée en six IX Parties méthodiques par le S^r J. M. HASSIUS Prof. des Math. Recueillie et dessinée sur les nouvelles cartes par Auguste Gottl. Boehmius Maître et Art. Aux Dignités des Horlogers de Romann l'An 1744



12

평사 투영에 의한 아시아지도

독일, 요한 마티아스 하스, 1744년, 61.0×54.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Asia secundum legitimas Projectionis Stereographicae regulas et juxta recentissimas observation

Germany, Johann Matthias Hass, 1744, 61.0×54.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스는 예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중국을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러시아의 아시아 해안 지역은 1730년대 러시아 탐사 자료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정확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여 홋카이도(北海道)가 아시아 대륙에 붙어있다. 이 지도는 당시 요한 크리스토퍼 호만이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간행한 아틀라스에 수록되었는데, 동해 해역을 소동양해(MARE ORIENTALE MINVS)로 표기하였다.

This map of Asia by Johann Matthias Hass, German cartographer, was published after his death. He mapped China in great detail based on geographical information from the Jesuit missionaries, while the coastal regions of Asian Russia were mapped using Russian exploration data in the 1730s. Hokkaido in Japan is shown attached to the Asian Continent due to the lack of geographic information about Japan. This map was included in the atlas published by Johann Homann, a German geographer and cartographer. In the map, the East Sea is named “MARE ORIENTALE MINVS,” literally meaning a small Oriental sea.



13

세계지도

1770년(초판은 1690년 발행), 66.0×50.5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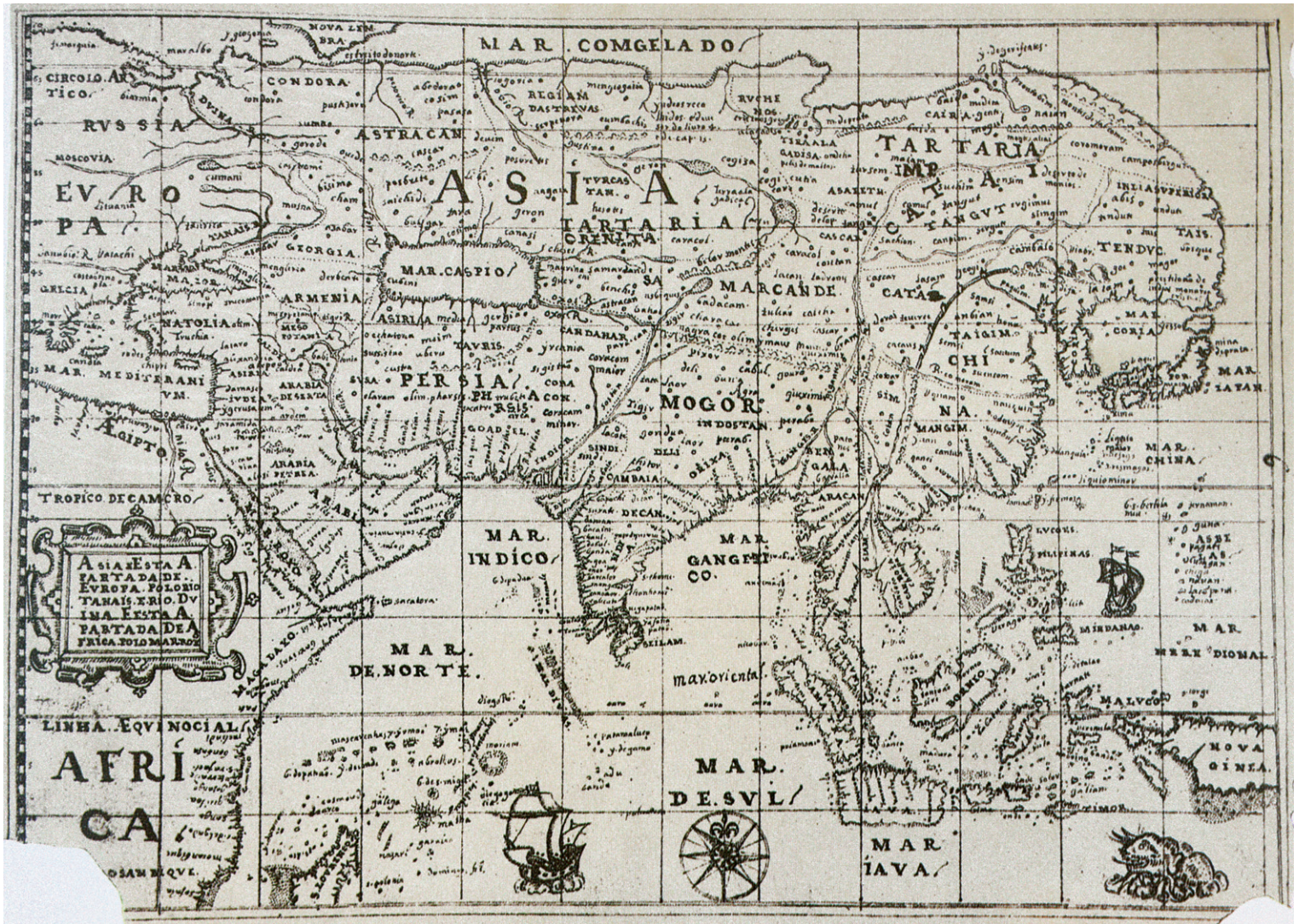
Mappa Totius Mundi

France, Guillaume Delisle, 1770, 66.0×50.5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 기욤 드릴이 1690년 발행한 지도를 1770년에 재발행한 지도이다. 동반구와 서반구 두 개를 모두 하나의 지도에 표현하고 있다. 지도에서 지명은 모두 라틴어로 나타났었다. 동해 해역 역시 라틴어로 동양해를 의미하는 'MARE ORIENTALE' 로 표기하였다.

The map above is a copy reprinted in 1770 from the map originally produced by Guillaume Delisle, French geographer, in 1690. It is a double hemispherical map of the world with Latin place names. The East Sea is named "MARE ORIENTALE," literally meaning Oriental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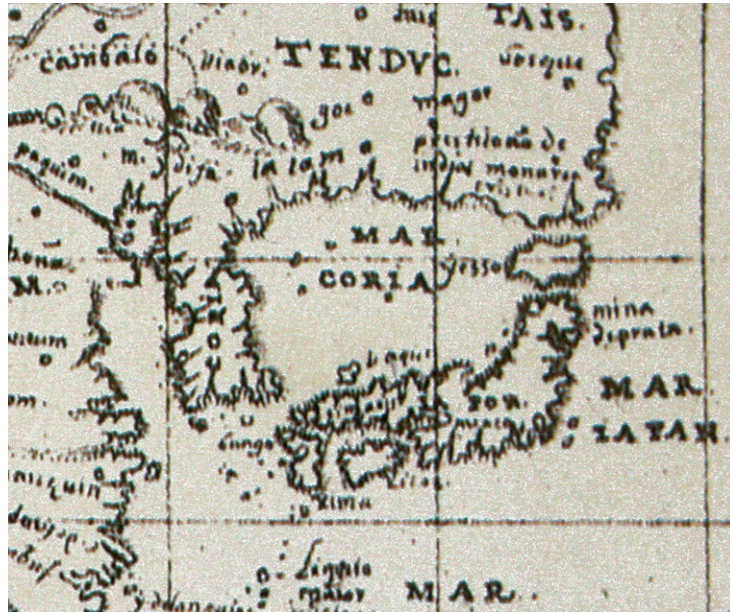
14

아시아 지도

포르투갈, 마누엘 고디뉴 디 에레지아, 1615년, 31×24cm, 티엔케이 소장

Mapa da Asia

Portugal, Manuel Godinho de Eredia, 1615, 31 × 24cm, Housed in TANDK



포르투갈 모험가이며 지도제작자인 마누엘 고디뉴 디 에레디아는 1563년 말라카에서 출생했다. 에레디아는 말라카와 고아의 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1579년 예수회에 입문하였으나, 곧 예수회를 떠났다. 이후 그는 지리학 연구에 몰두했으며 지도제작자로 활약하였다. 에레디아가 1615년에 제작한 이 지도는 동해를 '한국해(Mar Coria)'로 표기한 최초의 서양 고지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레디아는 바다의 왼편에 위치한 국가의 명칭을 따서 바다 명칭으로 사용한 기존의 관례를 따라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Portuguese explorer and cartographer Manuel Godinho de Eredia was born in Malacca in 1563. Eredia studied in theological seminaries of Malacca and Goa and became a Jesuit in 1579 but soon left the order. He devoted himself to research on geography and worked as a cartographer. Mapa da Asia, which Eredia completed in 1615, is significant as the first ancient Western map to denote the East Sea as "Mar Coria." It is presumed that Eredia followed the contemporary practice of applying the name of a nation located to the left of a particular body of the sea and named the East Sea "Mar Coria."



15

동반구도

프랑스, 기욤 드릴, 1724년, 69.5×52.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Hemisphere Oriental

France, Guillaume Delisle, 1724, 69.5 × 52.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EIZERRYK van CHINA, om te dienen tot de HISTORISCHE BESCHRYVING der REIZEN, door N. BELLIN, Ingenieur des Franshen Zeevaards, 1748.

16

중국

프랑스, 자크 니콜라 벨링, 1748년, 44.0×31.5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L'Empire de la Chine pour servir à l'Histoire Générale des Voyages
 France, Jacques Nicolas Bellin, 1748, 44.0×31.5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랑스의 왕실수료학자 벨링은 프랑스 해군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그는 세계의 해양 아틀라스를 제작하는 등 해양의 경계 구분에 조예가 깊었다. 이 지도는 그가 일반인의 지리 지식을 위해 제작한 아틀라스 속에 포함되어 있다. 동해 해역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병행하여 한국해(MER DE CORÉE, ZEE VAN KORÈA)로 표기하였다.

Jacques Nicolas Bellin, a French royal hydrographer, contributed to modernization of the French Navy. His profound knowledge of maritime boundaries can be found in a number of his sea-atlases of the world, including *Atlas Maritime*. This map is included in these atlases that he made to enhance people's geographic knowledge. In this map, the East Sea is called “MER DE CORÉE” in French and “ZEE VAN KORÈA” in Dutch.



17

아시아

이탈리아, 안토니오 자타, 1777년, 49.0×38.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L'Asia

Italy, Antonio Zatta, 1777, 49.0×38.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랑스 왕실지리학자 투르가 일반인의 세계지리 공부를 위해 제작한 지도이다. 특히 이 지도는 아시아지리 공부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가 제작한 아틀라스는 매우 유명하나,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른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와 마찬가지로 동해 해역에 한국해(MER DE CORÉE)로 표기하였다.

Louis Brion de la Tour, French royal geographer, is famous for his atlases, but little is known about his life. He specifically produced this map for educating people about Asian geography. He also produced maps for other parts of the world. Like other French royal geographers, he named the East Sea “MER DE CORÉE.”



19

일본왕국도

영국, 로버트 로리와 제임스 휘틀, 1794년, 73.0×54.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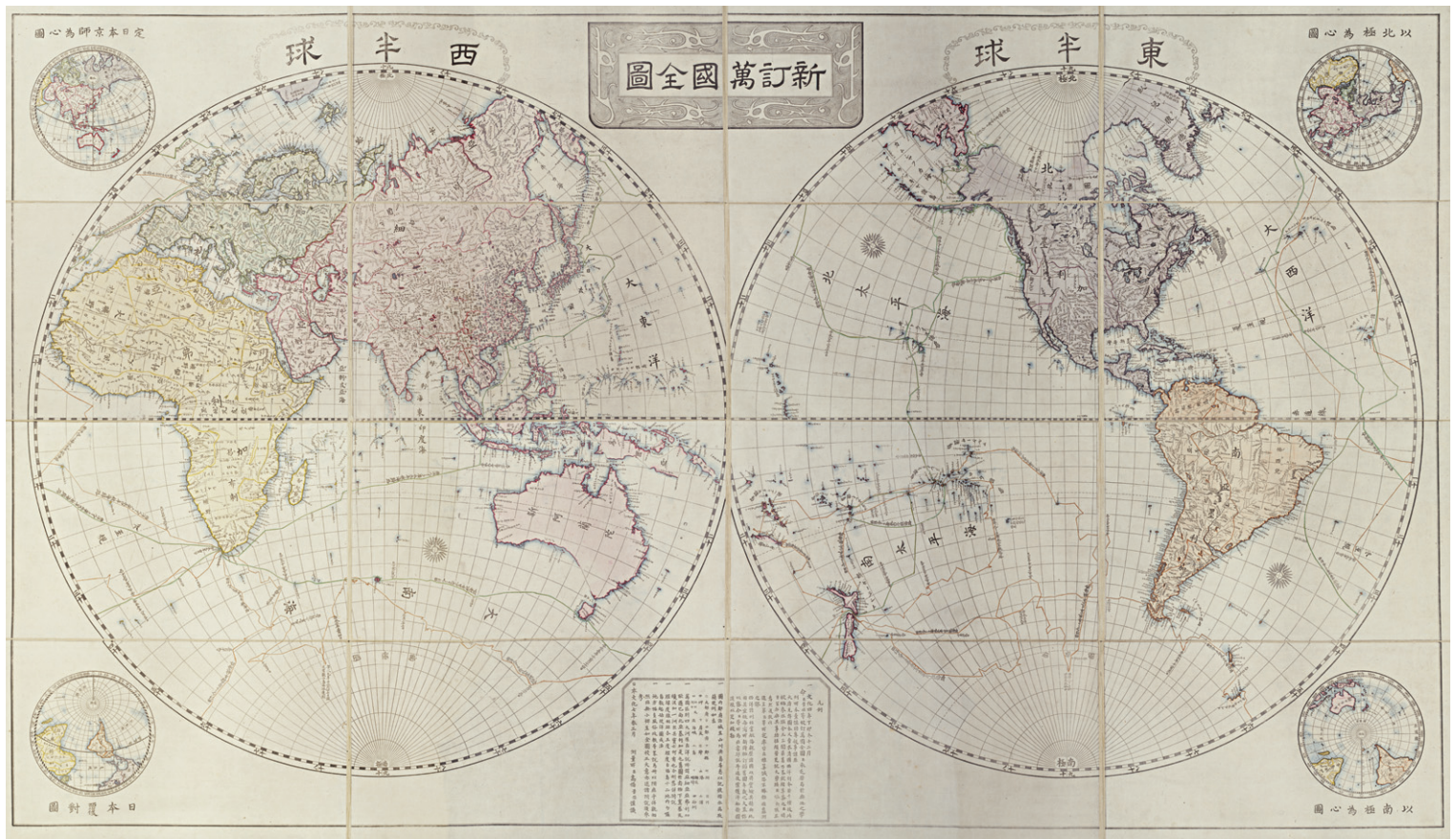
The Empire of Japan divided into seven principal parts and subdivided into sixty-six kingdoms; with the Kingdom of Corea, from Kempfer and the Portuguese

England, Robert Laurie and James Whittle, 1794, 73.0 × 54.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리와 휘틀은 영국에서 지도 출판사를 운영하였다. 이 지도의 일본 부분은 네덜란드의 켐페르와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대해 얻은 정보를 참조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부분은 당빌의 조선왕국전도를 바탕으로 표현하였다. 그들은 일본왕국도에서 동해 해역의 정중앙에 한국해(COREAN SEA)로 표기하였다.

Map printed and published by Robert Laurie and James Whittle in 1794. They mapped Japan based on geographical information collected from Engelbert Kempfer and the Portuguese Jesuit missionaries, while they used *Royaume de Corée* by J. B. B. D'Anville, French geographer, to map Korea. In their *Map of the Empire of Japan*, they placed “COREAN SEA” in the middle of the East Sea.



20

신정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

일본,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1810년, 199.0×114.0cm,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Shintei Bangokoku Zenzu

Japan, Takahashi Kageyasu, 1810, 199.0×114.0cm, Housed in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of Korea



지도제작자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당시 천문 담당의 관리였다. 그는 1807년 국가로부터 세계지도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3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이 지도에는 동해 해역을 ‘조선해(朝鮮海)’, 그리고 일본의 동쪽 바다를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였다.

Map by Takahashi Kageyasu, Japanese cartographer and astronomer. He began to produce a world map by the order of the Shogunate government in 1807 and submitted the map to the government in 1810. In the map, he gave the name “Sea of Joseon” to the sea to the east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he gave the name “Great Japanese Sea” to the sea to the east of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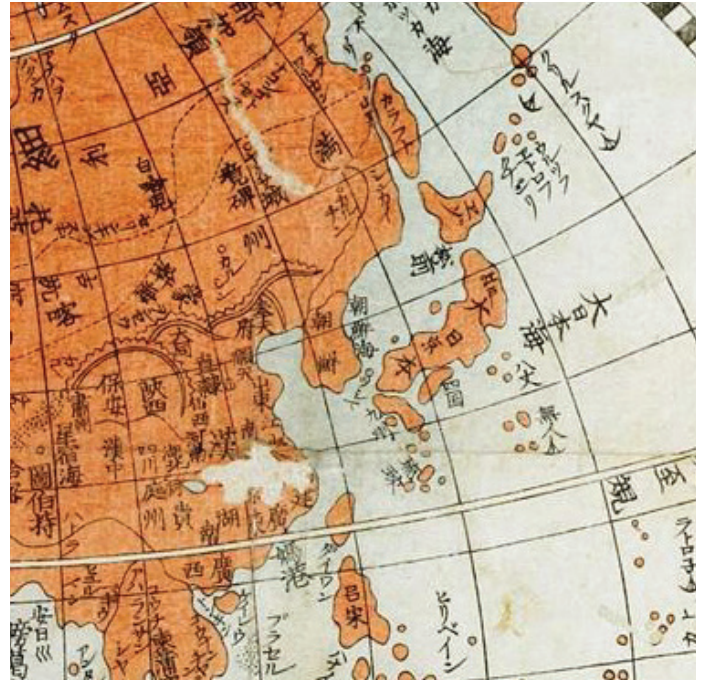
21

동서지구만국전도(東西地球萬國全圖)

일본, 구리하라 노부아키(栗原信晁), 1848년, 64.0×37.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Touzai Chikyu Bangokoku Zenzu

Japan, Kurihara Nobuaki, 1848, 64.0×37.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랑스의 세계지도를 입수하여 제작한 지도로 조선해 등의 지명은 수입된 것이다.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고, 아시아를 홍색으로 표현하는 등 6대주를 채색으로 구분하였다. 동반구는 일본의 교토를 중심으로 제작했지만, 조선의 윤곽은 분명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조선해(朝鮮海)’, 그리고 태평양쪽 바다를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였다.

This map was produced by the Japanese cartographer Kurihara Nobuaki, based on French world maps. In the maps, he divided the world into Western and Eastern hemispheres and assigned colors to the continents and oceans of the world, such as orange for Asia. The Eastern hemisphere is centered at Kyoto in Japan. The shape of Korea represented is different from what it looks like in reality. In his map, he used “Sea of Korea” to name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while he named the Pacific Ocean the “Sea of Great Japan.”



22

아시아지도

영국, 제임스 와이로드, 1846년, 76.0×59.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Map of Asia

England, James Wyld, 1846, 76.0×59.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국의 왕실지리학자 와일드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이다. 그는 19세기에 여러 지도제작자들이 동해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한국과 관련시켜 표현하였다. 그는 한국해라는 지명 대신 보다 좁은 의미의 바다인 만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만(GULF OF COREA)으로 표기하였다.

Asian Map by James Wyld, British royal geographer. Although “Sea of Japan” was used by several cartographers in the 19th century, James Wyld adopted “GULF OF COREA” in naming the East Sea. A gulf is a sea partly enclosed by land and the name is often used to refer to a body of water smaller than a sea.



23

아시아

영국, 존 세넥스, 1725년, 미의회도서관 소장

Asia

England, John Senex, 1725, Housed in the U.S. Library of Congress



런던과 파리 과학원에서 관측한 경위도 좌표를 근거로 기존의 아시아 지도를 수정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제작자 세빅스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연합한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의 첫째 국왕인 앤 여왕(재위 1702-1714) 때의 왕실지리학자였다. 그는 당시에 불려졌던 동해와 한국해(THE EASTERN OR COREA SEA)를 지도에 병기하였다.

Map created as a revision from the existing Asian map using the coordinate system observed by the British and French Academy of Sciences. John Senex was a royal geographer during the reign of Queen Anne of Great Britain (1702-1714). He adopted “THE EASTERN OR COREA SEA” to name the East Sea.



24

아시아

영국, 존 세넥스, 1725년, 미의회도서관 소장

Asia

England, John Senex, 1725, Housed in the U.S. Library of Congress



영국의 왕실지리학자 세넥스는 아시아에 대해 많은 지도를 그렸다. 그는 최신의 지리 정보를 영국과 프랑스의 과학원에서 수집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에서는 아시아인의 풍습 또한 그림으로 묘사하였다. 동해 해역은 동해와 한국해(THE EASTERN OR COREA SEA)로 병기하였다.

John Senex, royal geographer of England, produced many Asian maps based on the most up-to-date geographic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British and French Academies of Sciences. In this map, he also illustrates Asian customs. "THE EASTERN OR COREA SEA" is used to refer to the East Sea region.



25

일본왕국도

프랑스, 질 로베르 드 보곤디, 1750년, 69.0×52.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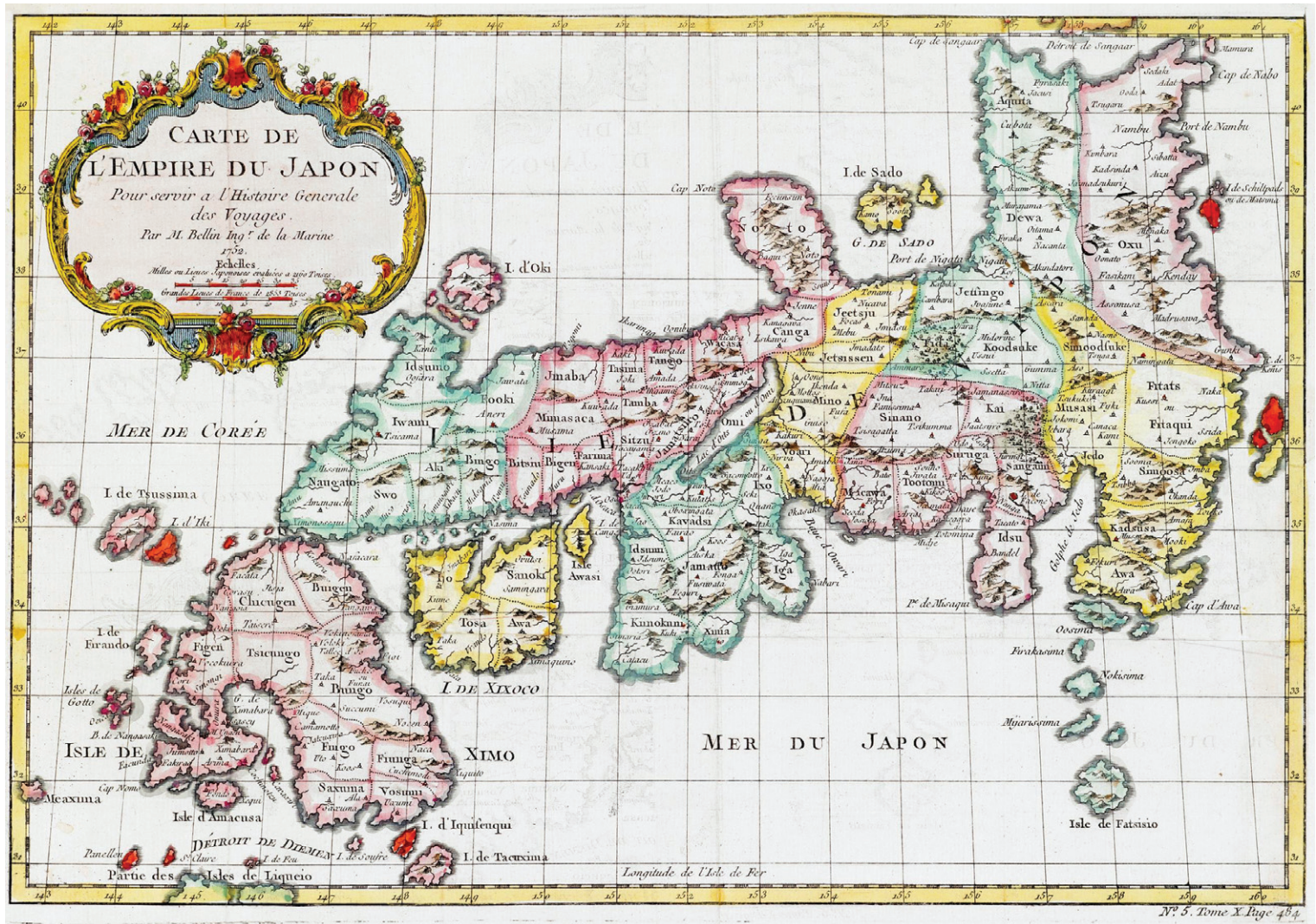
L'Empire du Japon

France, Gilles Robert de Vaugondy, 1750, 69.0×52.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 보곤디는 다른 지도제작자와 달리 한국 연안은 한국해(MER DE CORÉE), 일본 연안은 일본해(MER DU JAPON)로 병기하였다. 17세기의 로버트 두들리(Robert Dudley)와 18세기 초의 장 밥티스트 놀린(Jean-Baptiste Nolin)은 동해 해역에 대해 각각 연안을 따라 한국해와 일본해로 표기한 적이 있다.

Robert de Vaugondy was a royal geographer and leading cartographer in France during the 1700s. Unlike other cartographers, he named the sea adjacent to the Korean Peninsula “MER DE CORÉE,” and the sea adjacent to Japan “MER DU JAPON.” Similar patterns of naming the East Sea were also found in maps published by Robert Dudley in the 17th century and Jean-Baptiste Nolin in the early 18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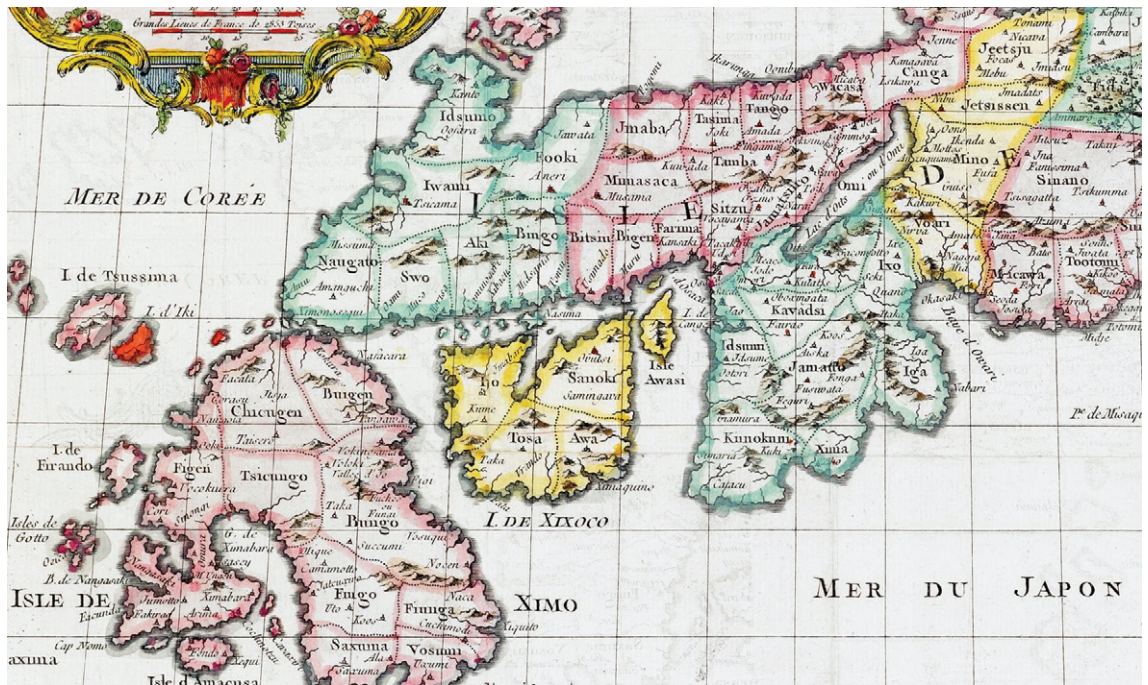
26

일본왕국도

프랑스, 자크 니콜라 벨링, 1752년, 34.0×25.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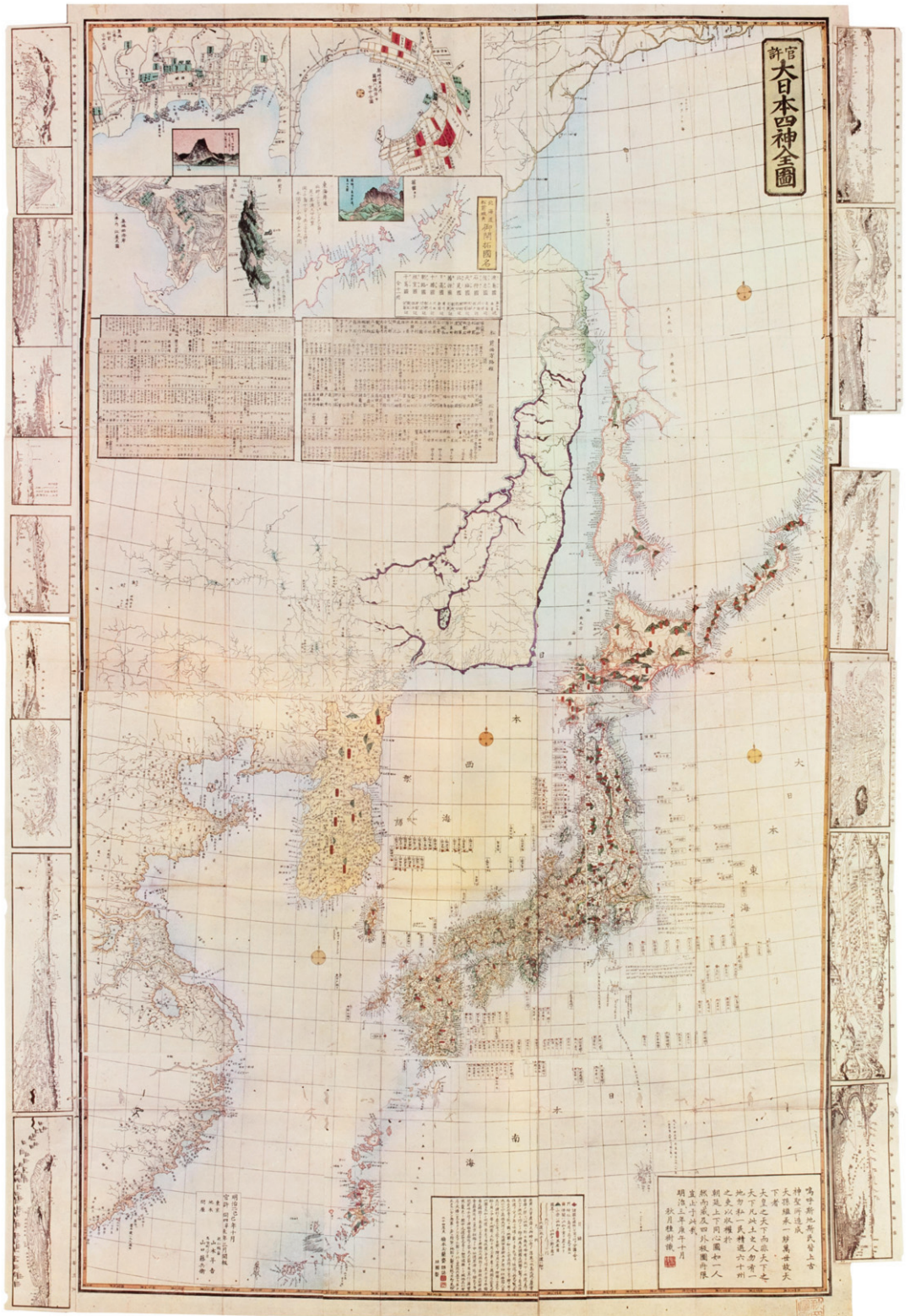
Carte de l'Empire du Japon

France, Jacques Nicolas Bellin, 1752, 34.0×25.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랑스의 왕실수리학자 벨링이 여행자들의 일본역사 이해를 위해 제작한 지도이다. 당시 동해 해역의 측량 자료가 미비하여 오키섬의 표현 등에 오류가 보인다. 바다 명칭은 일본의 남쪽에 일본해(MER DU JAPON), 그리고 대한해협 위치에 한국해(MER DE CORÉE)로 표기하였다.

Jacques Nicolas Bellin, a French royal hydrographer, produced this map to help travelers understand Japanese history. Due to the lack of survey along the northern coast of Japan and the East Sea, several mistakes were made in naming geographic features, including Oki Islands. He called the sea in the south of Japan “MER DU JAPON,” while he named the Korea Strait “MER DE CORÉE”.



27

관허대일본사신전도

(官許大日本四神全圖)

일본, 하시모토 교쿠란사이(橋本玉蘭齋), 1868년,
59.3×83.3cm, 호사가 유지 교수 소장

Kankyo Dainihon Sizin Zenzu

Japan, Hashimoto kyukuransai, 1868,

59.3×83.3cm, Private Collection



화가이자 지도제작자였던 하시모토 교쿠란사이가 관허로 제작한 일본과 그 주변지도이다.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조선해(朝鮮海)’, 그리고 일본 본토의 서측에는 ‘일본서해(日本西海)’로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19세기 후반 일본 정부의 관허지도로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이 정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동해 해역의 명칭을 병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ap of Japan and its adjacent region by Hashimoto Kyokuransai, a Japanese artist and cartographer. In this map produced with Japanese government permission, he placed “Sea of Joseon” along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st Sea of Japan” at the west coast of Japan. This indicates that the name “Sea of Japan” was not established yet in Japan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도 *Dokdo*



동

해 바다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고문서 이외에 팔도총도를 비롯하여 여러 고지도에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사항은 일본이나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독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마쓰시마(松島), 다케시마(竹島)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서양의 고지도에서는 Tchien-chan-tao, Liancourt Rocks, Hornet Rocks, Menelai와 Olivutsa 등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독도 고지도에서 주목할 사항은 첫째, 일본은 스스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05년 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한국지도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독도가 한반도와 동일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전도, 시마네현전도, 오키지도 등에서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서양고지도에도 독도가 한국령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 당빌이 18세기에 제작한 중국전도, 조선왕국전도, 1857년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이 제작한 조선동해안도, 그리고 1904년 프랑스 군지도제작소에서 제작한 강릉지도 등이 그러하다.

The two islands located in the East Sea, Ulleungdo and Dokdo, were frequently reckoned as Korean territory in many Korean historical documents and maps, including *Paldochongdo*. The same is true of old Japanese and European maps.

Dokdo has had various names in history. Here in Korea, Dokdo was called Usando, Sambongdo, Gajido, or Seokdo, while old Japanese maps referred to it as Matsushima or Takeshima. Old European maps, meanwhile, labeled Dokdo as Tchian-chan-tao, Liancourt Rocks, Hornet Rocks, Menelai, or Olivutsa.

There are two points worth noting in the old maps with regard to Dokdo. First, Japan regarded Dokdo as a Korean territory in their old maps. For instance, the majority of Japanese maps published prior to 1905 show Dokdo to be a Korean territory and painted it in the same color as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Dokdo was completely excluded in such Japanese maps as the *Complete Map of Japan*, *Shimane Prefecture Map*, and *Map of Oki Islands*.

Second, Dokdo appeared as a Korean island in many old European maps. Both the 18th century French Map of China and the Korean Kingdom, produced by royal geographer D'Anville, as well as the Nautical Chart of the Korean East Coast, published in 1857 by the Russian Navy Hydrographic Service, indicated Dokdo as a Korean territory. Another map produced by the French Army Map Service in 1904, a Map of Gangneung, also included Dokdo within the boundaries of Korea.



01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

한국, 작자미상, 17세기 초, 190×180cm,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Cheonba Yeojido

Korea, Author unknown, early 17th century, 190 × 180cm, Housed in the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이 지도는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약탈하여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울진 앞 바다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표시하였는데, 독도(우산도)를 울릉도의 서쪽에 표시하였다.

During Byeongin yangyo (the French invasion into Ganghwa Island) in 1866, the French navy stole this map, which had been housed in the Gyujanggak (Royal Library) Annex on the island. The map is currently kept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In this map, Dokdo is located to the west of Ulleungdo.



02

중국전도

프랑스, 당빌, 1732년, 78.5×51.0cm, 이돈수 교수 소장

Carte Generale De La Tartarie Chinoise

France, D'Anville, 1732, 78.5×51.0cm, Private Collection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 당빌이 황여전람도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지도에서 지명 표기는 중국어 발음을 따랐는데, 한국을 고려(KAOLI, CORÉE), 조선(TCHAO-SIEN) 등으로 나타내었다. 독도는 천산도(千山島)의 중국식 발음 Tchiang-chan-tao로 표기하였다. 이는 당시 독도의 명칭이었던 우산도(于山島)의 우(于)를 천(千)으로 읽은 것이다.

Map of China by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French royal geographer. This map was produced based on *Hwangyeo Jeollamdo*. Toponyms followed native pronunciations, such as KAOLI, CORÉE, and TCHAO-SIEN for Korea. Thus Dokdo was indicated as Tchiang-chan-tao, the native Chinese pronunciation of Cheonsando, based on Usando, the name for Dokdo in those days. However, the “U” in Usando was misread as “Cheon.”

03

조선왕국전도

프랑스, 당빌, 1737년, 44.0×60.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ROYAUME DE CORÉE

France, D'Anville, 1737, 44.0×60.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랑스의 왕실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한국지도이다. 중국어 발음으로 울릉도(鬱陵島)를 Fan-ling-tao, 독도(于山島)를 Tchian-chan-tao로 표기하였다. 독도가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은 우산도(于山島)의 우(于)를 천(千)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독도가 내륙 가까이 표기되어 있지만,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Korean Map by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French royal geographer. This map records the place names according to Chinese pronunciation, for example Fan-ling-tao for Ulleungdo and Tchian-chan-tao for Dokdo. The Chinese pronunciation of Cheonsando was based on Usando, the name of Dokdo in those days, but the "U" in Usando was misread as "Cheon." It is clear that Dokdo, located close to the Korean peninsula, was at this time designated as Korean territory.

04

삼국점양지도(三國接壤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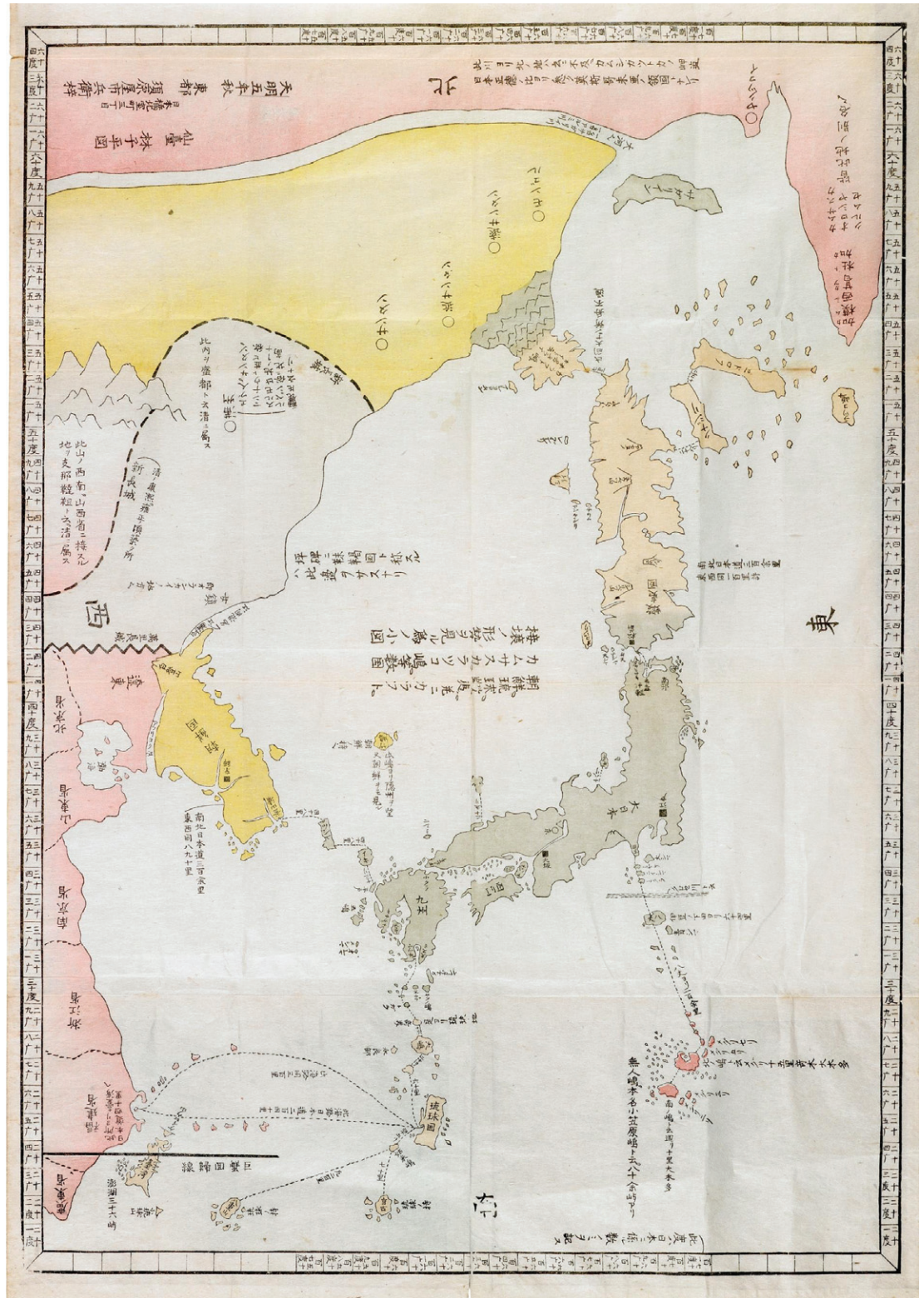
일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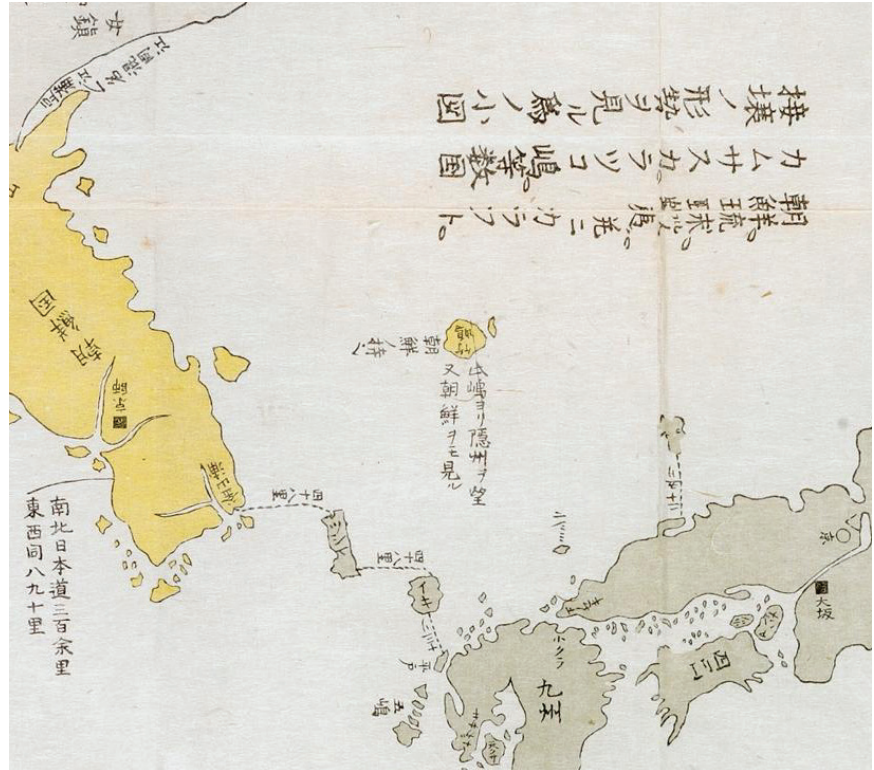
50.5×72.5cm, 임덕순 교수 소장

Sangoku Setsujo Chizu

Japan, Hayashi Shihei, 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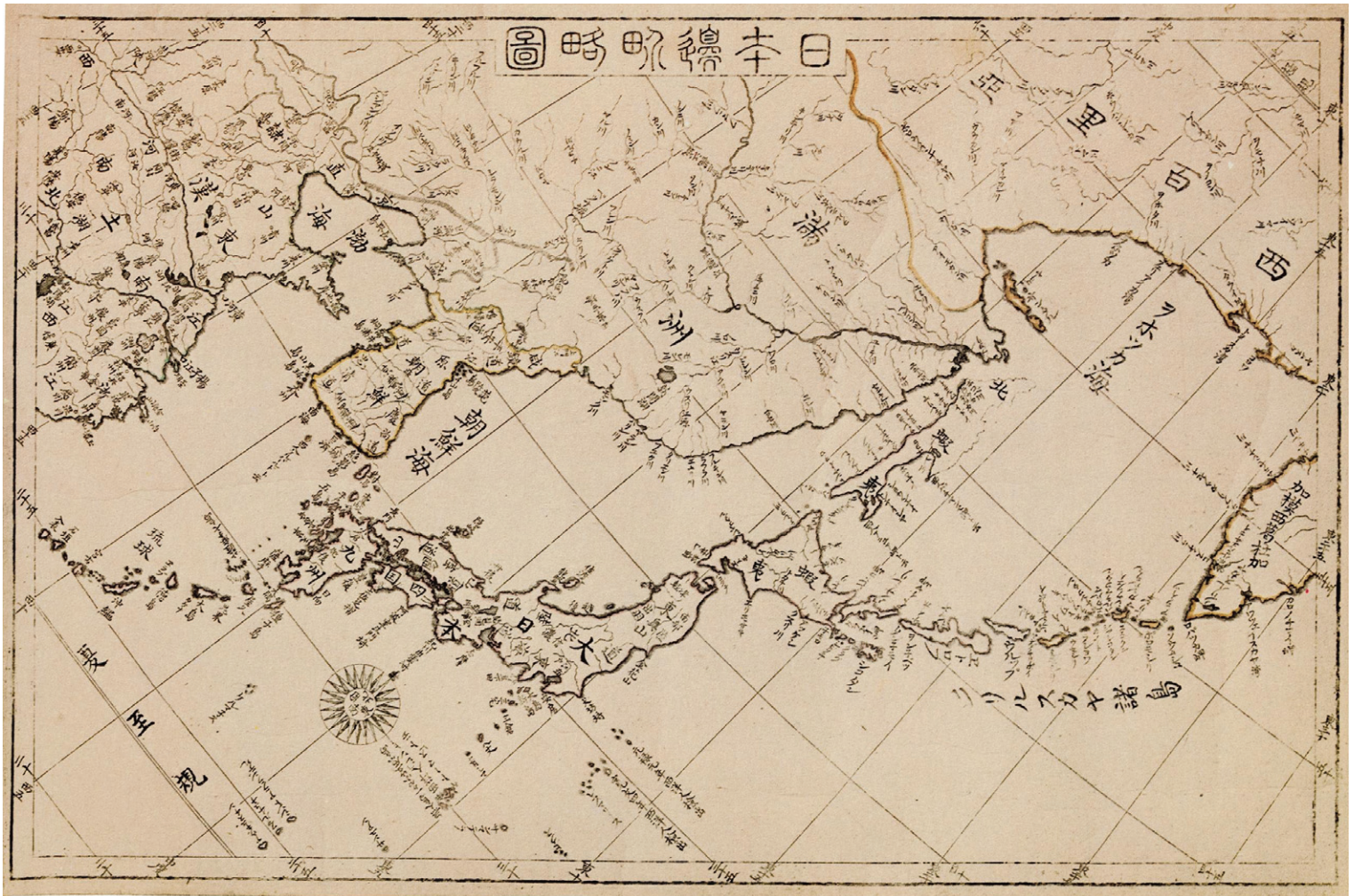
50.5×72.5cm, Private Collection





1785년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도설』에 첨부된 부도 5장 가운데 하나이다. 지도에서 국가를 구분하기 위해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으로 채색을 달리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또한 그 옆에 ‘조선의 소유다(朝鮮ノ持也)’ 라고 적어 이들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This map is one of five maps included in the *Sangoku Tsuran Zusetsu* published by Hayashi Shihei in 1785. Different colors were assigned to distinguish between countries: orange for Joseon and green for Japan. He colored Ulleungdo and Dokdo orange and made clear Korea’s possession of both Ulleungdo and Dokdo with a note, “Possessed by Joseon,” next to the islands.



05

일본번계약도(日本邊界略圖)

일본,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1809년, 24.0×35.1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Nihon Henkai Ryakuzū

Japan, Takahashi Kageyasu, 1809, 24.0×35.1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천문관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국가의 지시를 받고 세계지도 신정만국전도를 만들기 전에 제작한 일본지도이다. 이 지도에서는 해역 명칭을 조선해(朝鮮海)로 나타내고, 울릉도(茂陵島)와 독도(千山島)를 원산만에 표기하였다.

Takahashi Kageyasu, Japanese cartographer and astronomer, produced this map by the order of the Shogunate government before he began to produce the world map, *Shintei Bangkoku Zenzu*. In the map, he named the East Sea the “Sea of Joseon” and placed Ulleungdo and Dokdo next to the Wonsan Bay. This map was an official map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dicating that Japan acknowledged that Dokdo was part of Korea.



06

조선전도(朝鮮全圖)

한국, 김대건, 1846년, 59.0×100cm, 독도박물관 소장

Carte de la Corée

Korea, Kim Daegeon, 1846, 59.0 × 100cm,
Housed in the Dokdo Museum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외국 선교사들을 위해 만든 한국지도로 지명을 라틴어로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베이징에 있던 프랑스 영사 드 몽티니(De Montigny)에게 전달되어 한국이 서양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도에서 울릉도는 Oulengto, 그리고 당시 독도의 명칭 Ousan이 표기되어 있다.

Kim Daegeon, the first Korean-born Catholic priest, produced this Korean map in Latin for foreign missionaries. De Montigny, the then French consul in Beijing, introduced this map to the West, helping Korea to be better known and understood. In the map, Kim Daegeun named Ulleungdo as "Oulengto" and Dokdo as "Ousan."



07

강원도(江原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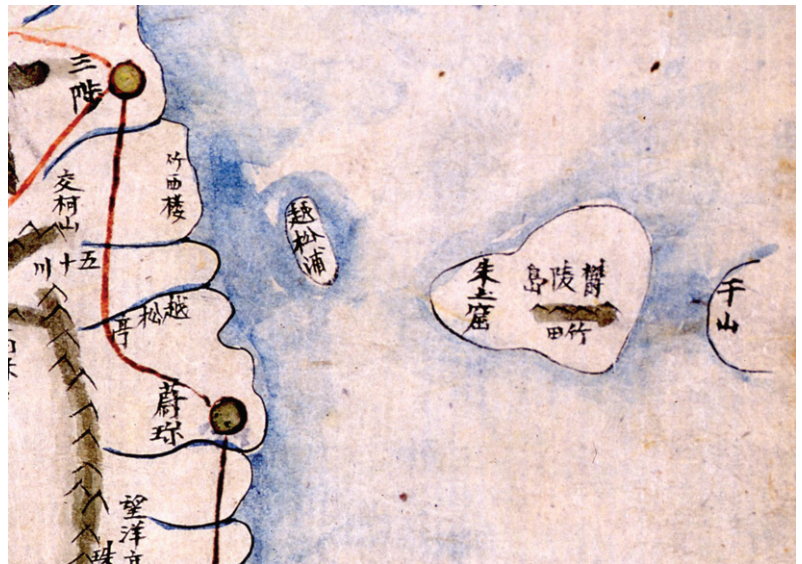
한국, 작자미상, 19세기 중반, 43.0×31.2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Gangwondo

Korea, Author unknown, Middle 19th century, 43.0×31.2cm,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채색 필사본 『해동전도』에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 지도이다. 정상기의 ‘팔도분도’ 류의 지도로 산맥, 하천, 도로망 등이 자세하다. 강원도 동남쪽에 울릉도를 표시하고, 우측에는 우산(독도)을 표기하여 두 섬이 강원도 소속임을 밝혔다.

Map of Gangwon Province included in the color manuscript copy of *Haedong jeondo*. This map falls into the category of *Paldo bundo* (Maps of the Entire Eight Provinces) by Jeong Sanggi and depicts topographic details like mountains, rivers, and roads. By locating Ulleungdo to the southeast of Gangwon Province and Dokdo to the east of Ulleungdo, this map declared that both islands belonged to Gangwon Province.

08

조선동해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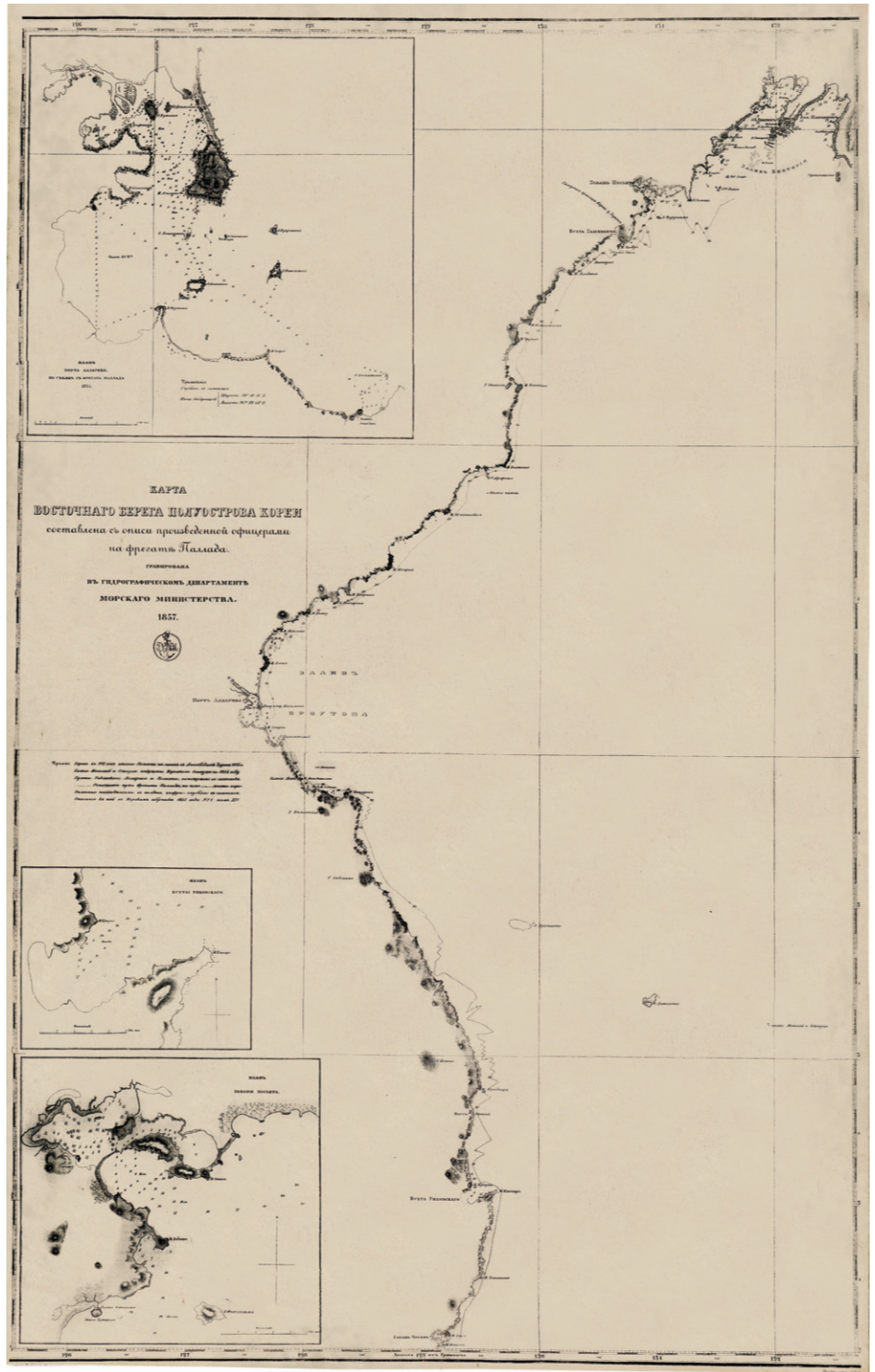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 1857년, 63.0×94.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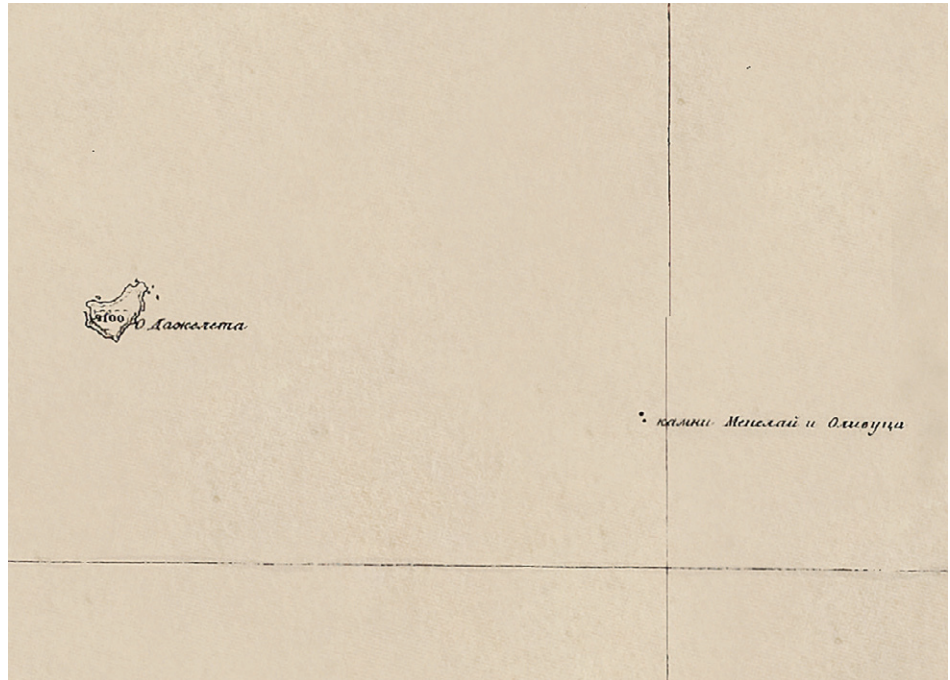
Map of Joseon's Eastern Seashore

Russia, Russian Navy Hydrographic Service, 1857,

63.0×94.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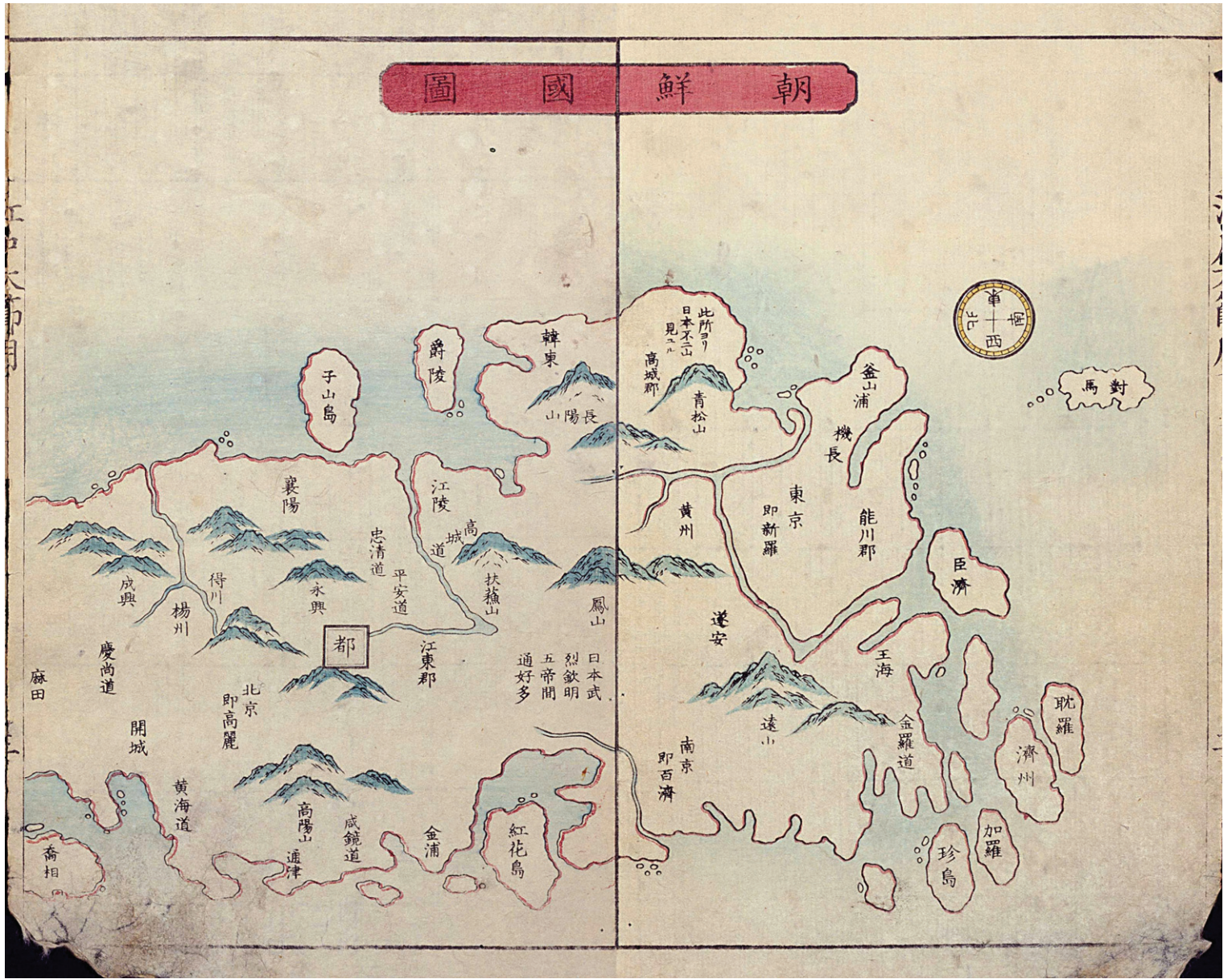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해군 팔라다(Pallada)호의 장교들이 1854년 한반도 동해안을 세밀하게 측량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그 성과로서 1857년에 조선동해안도를 제작하였다. 여기에는 울릉도 이외에 최초로 독도를 두 개의 작은 섬으로 나타내고, 러시아어로 서도를 올리부차(Olivutsa), 동도를 메넬라이(Menelai)로 표기하였다. 이는 러시아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Pallada, a Russian naval vessel, meticulously surveyed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 1854. Based on the survey, the Russian Navy Hydrographic Service produced the *Map of Joseon's Eastern Seashore* in 1857. Besides Ulleungdo, this map first disclosed two main islands of Dokdo and named the Islands in Russian: Seodo (West Island) was called Olibutsa and Dongdo (East Island) Menelai. This clearly indicates that Russia acknowledged Dokdo as an indispensable part of Korea's territory.



09

조선국도(朝鮮國圖)

일본, 모리 후사이(森楓齋, 1863년, 26.5×31.5cm, 이돈수 교수 소장)

Chosenkokuzu

Japan, Mori Husai, 1863, 26.5 × 31.5cm, Private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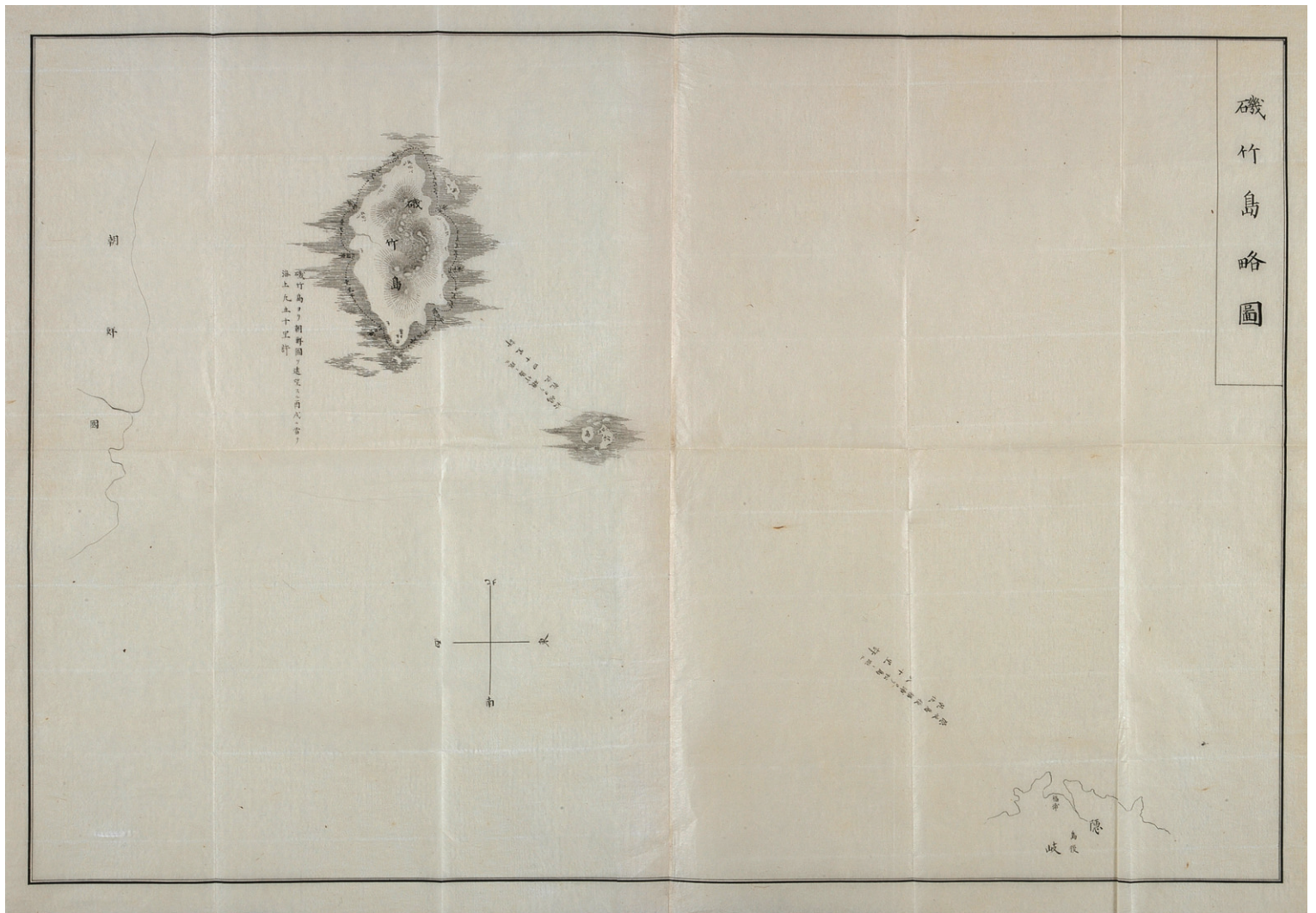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과사전 『강호대절용해내장(江戸大節用海内蔵)』의 부록지도로 1704년 초판, 1863년에 보각되었다. 울릉(鬱陵)을 작릉(爵陵), 당시 독도를 의미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자산도(子山島)로 표기하였다. 이 사전은 일본에서 통용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한 것이다.

This map was contained in a Japanese encyclopedia, *Edo Obosetsu Yokai Daikura*, first published in 1704 and revised in 1863. The author named “Ulleung” as “Jakleung” and “Usando” (Dokdo) as “Jasando.” This encyclopedia included information commonly accepted in Japan in those days and evidences that Japan undeniably acknowledged Dokdo as part of Korean territory.



10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일본, 내무성, 1877년, 38.0×58.0cm,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Isotakeshima Ryakuzu

Japan, Department of the Interior of Japan, 1877, 38.0×58.0cm, House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내무성은 1877년 3월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총리실)에 ‘울릉도(磯竹島)의 1도(松島)’를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보냈고, 이에 태정관은 두 섬이 일본과 관계없다고 공식 결정한 문서를 회신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05년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of Japan submitted a question to the Dajokan (The Great Council of State) about the inclusion of Ulleungdo and another island (Songdo) in the Japanese National Land Registry in March 1877. The Dajokan replied with a formal letter stating that Japan had no relationship with either island. As such, Japan acknowledged that prior to 1905, it did not possess Dokdo.



11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일본, 육군참모국, 1877년, 123×115cm, 호사카 유지 교수 소장

Dainihon Zenzu

Japan, Military Affairs Bureau, 1877, 123×115cm, Private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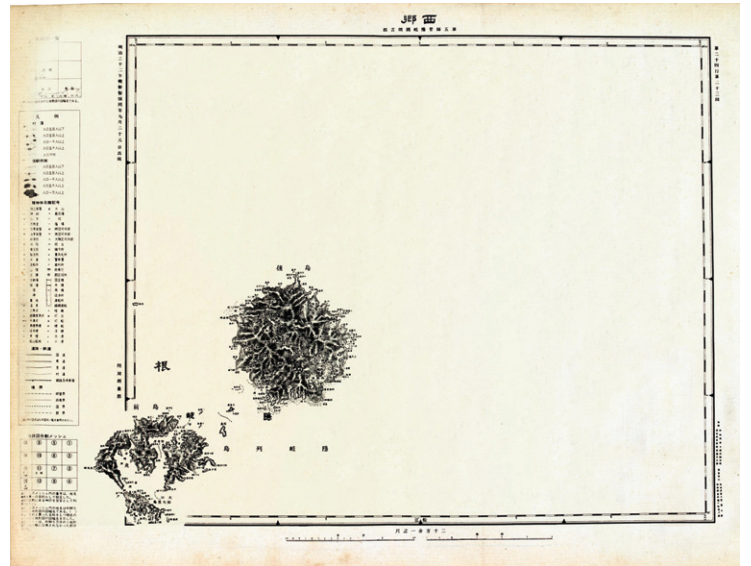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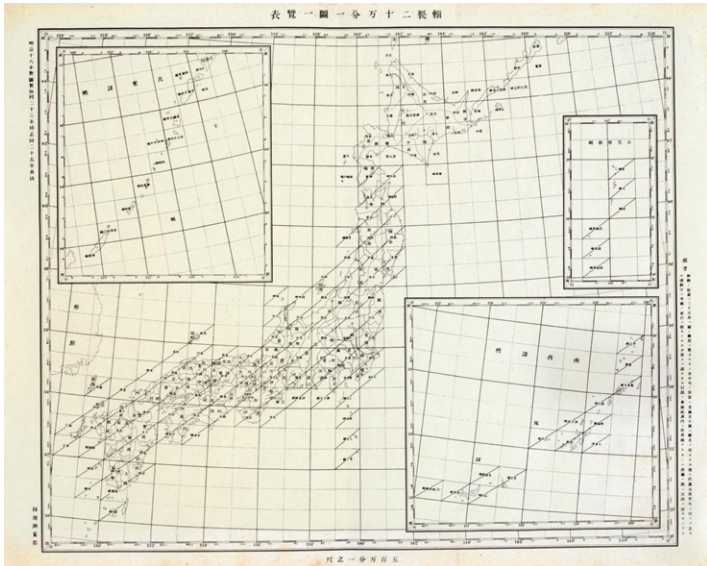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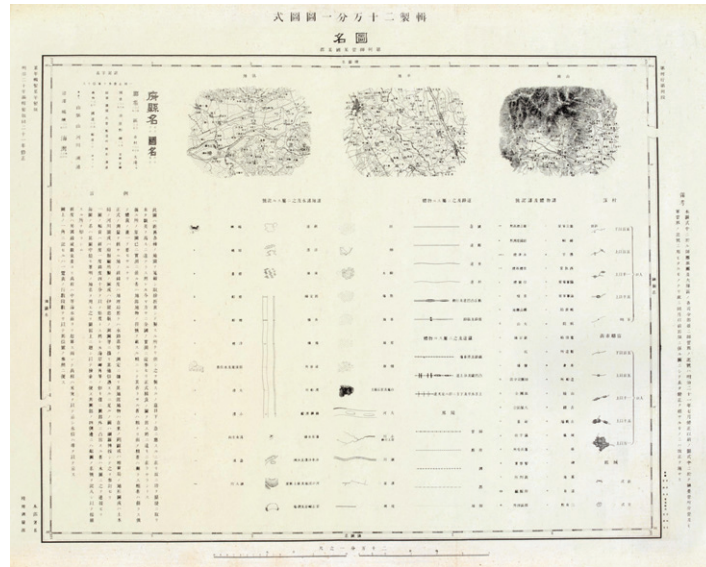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 조선, 청국의 전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된 것이다. 당시 육군참모국은 일본의 영토 전체를 자세하게 나타냈지만, 지도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계속 일본의 영토로 영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도는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된다.

Japan began to produce complete maps of Japan, Joseon, and China in the Meiji era. This map was the first among these maps. At that time, the Japanese Military Affairs Bureau portrayed its entire territory, but Dokdo was not included in this map. This map counters Japan's argument that it controlled Dokdo as its terr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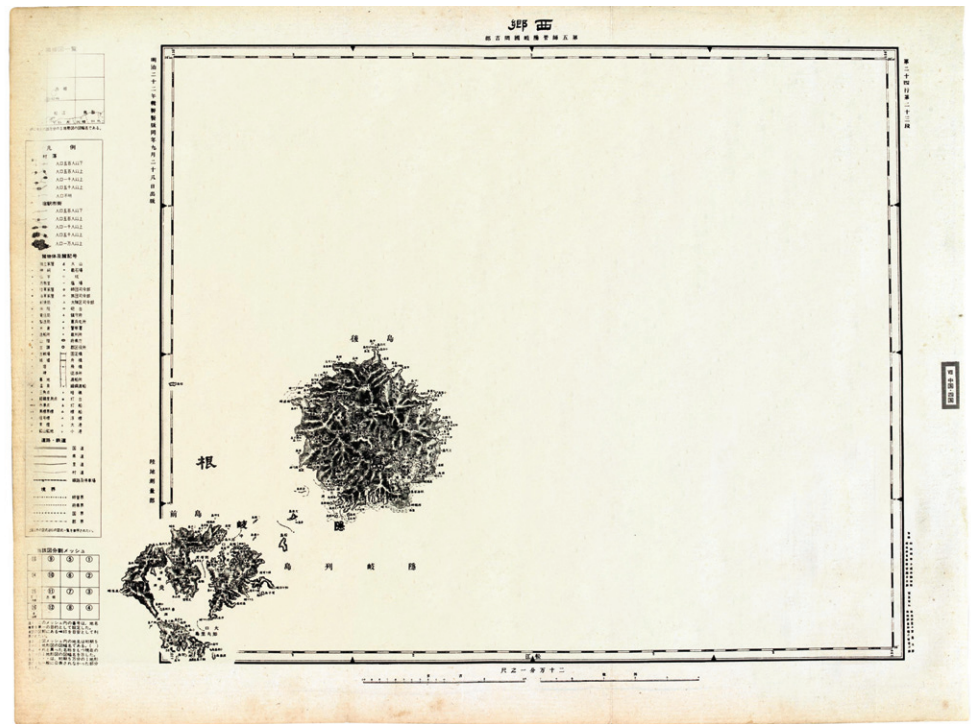
12

1/20만 오키지도

일본, 육지측량부, 1889년, 59.2×42.0cm, 호사카 유지 교수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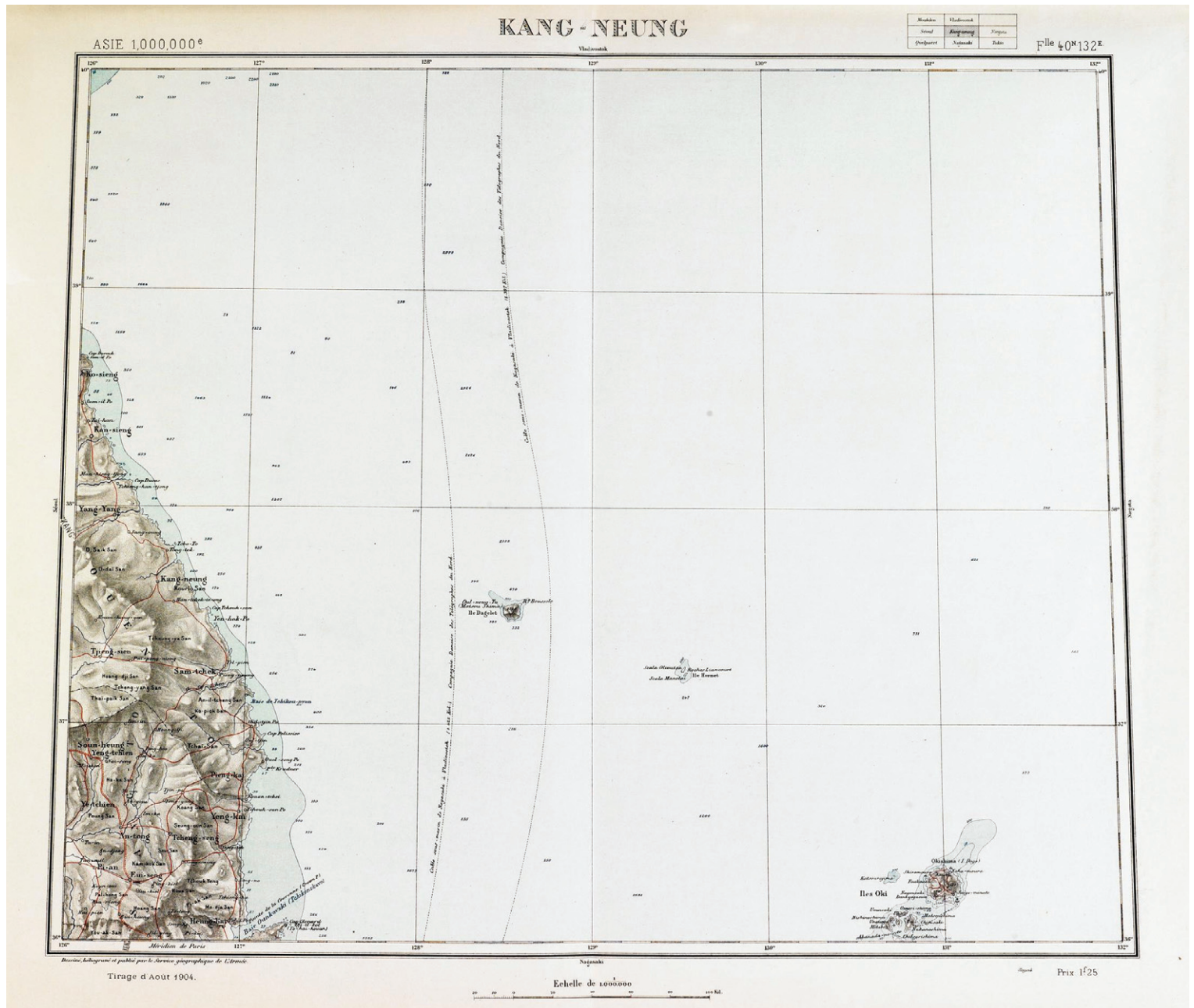
Oki Chizu on a scale of 1:200,000

Japan, Land Survey Board, 1889, 59.2×42.0cm, Private Collection



여기에 제시된 3장의 지도는 1/20만 일본지도의 제작지역 일람표, 지도제작의 경위 설명문, 그리고 1/20만 오키지도 등이다. 현재 일본 국토지리원 제작의 1/20만 오키지도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의 지도에는 독도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취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The three maps above include *a list of maps of Japan on a scale of 1:200,000, an explanatory note to the map, and the Oki Chizu on a scale of 1:200,000*. Given the fact that Dokdo was excluded in the *Oki Chizu on a scale of 1:200,000*, it is clear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Dokdo to be part of its terr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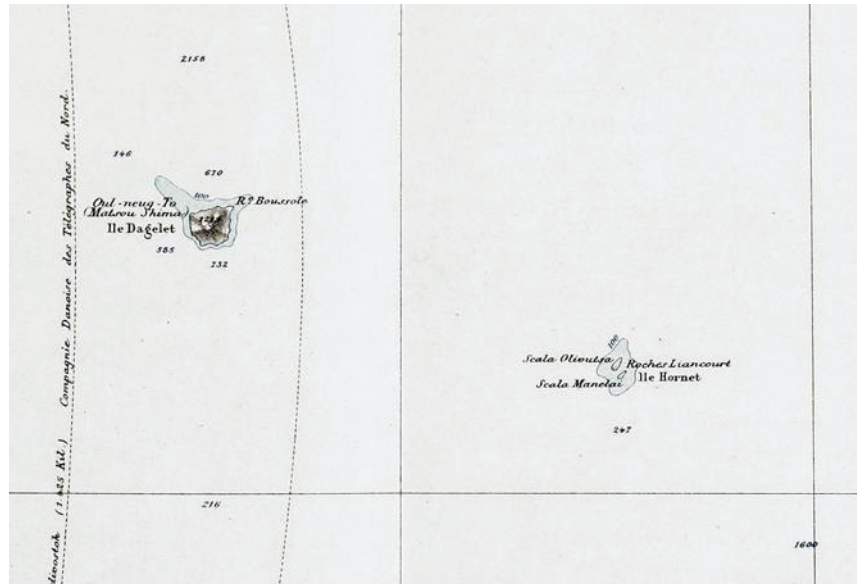
13

강릉

프랑스, 군지도제작소, 1904년, 68.9×54.6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Kang N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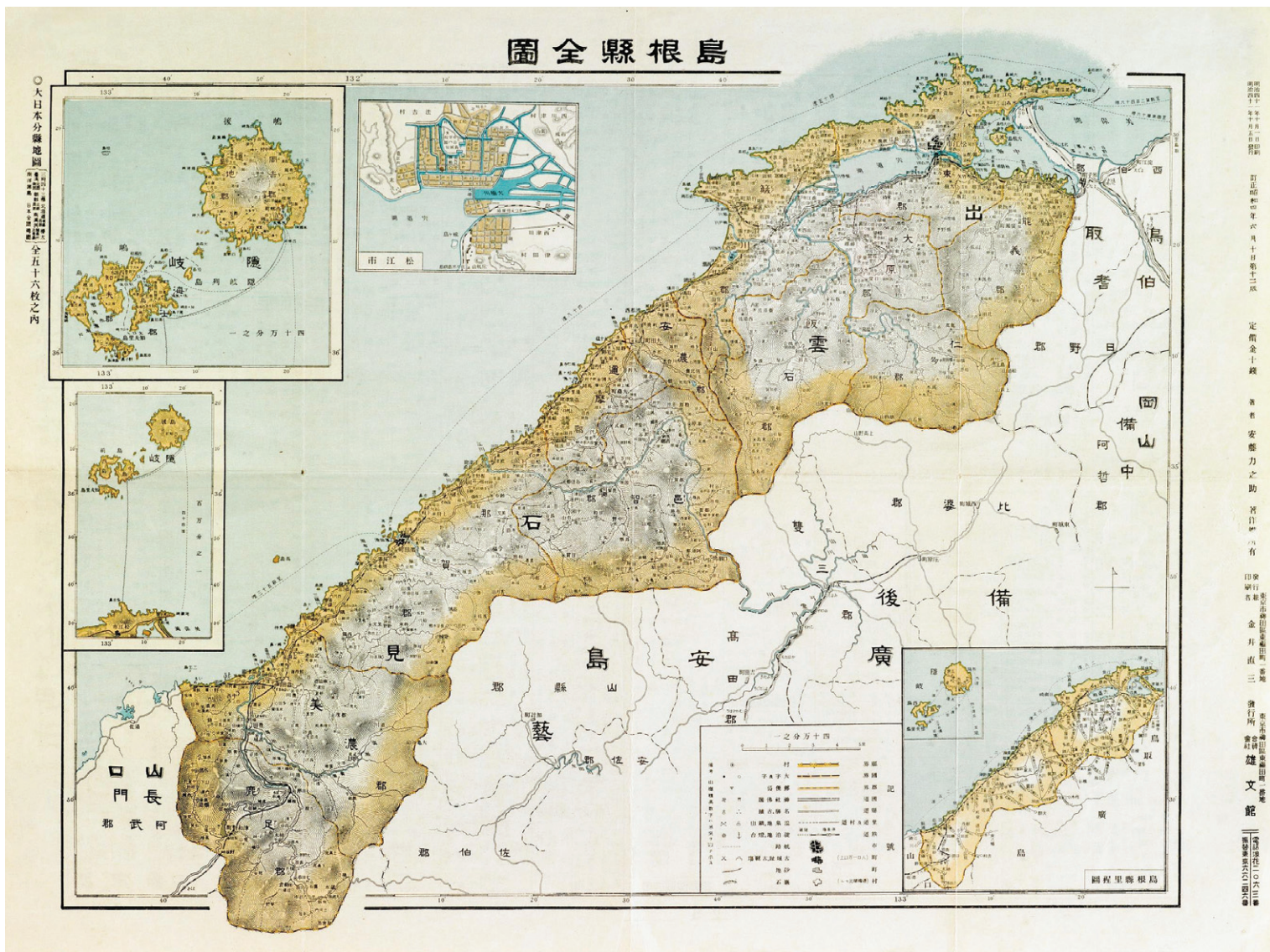
France, French Army Map Service, 1904, 68.9×54.6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재 프랑스 국립지리원(IGN)의 전신인 군지도제작소가 1898년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기존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강릉 이외에 서울, 제주, 블라디보스톡 지도도 함께 발간했다. 독도 지명은 당시 서양(러시아, 프랑스, 영국)에서 사용된 서도(Scala Olioutsa)와 동도(Scala Manelai), 리양쿠르 록스(Rockes Liancourt), 호넷(Ile Hornet) 등을 모두 표기하였다.

The French Army Map Service, the predecessor to the Institut Géographique National (IGN), France, produced maps of Asia for military and commercial purposes in 1898. Using accumulated data, the French Army Map Service published a map of Gangneung along with maps of Seoul and Jeju in Korea and Vladivostok in Russia. All toponyms commonly used in the West (Russia, France, and England) to indicate Dokdo in those days, such as Scala Olioutsa, Scala Manelai, Rockes Liancourt, and Ile Hornet, were listed in the map.

島根縣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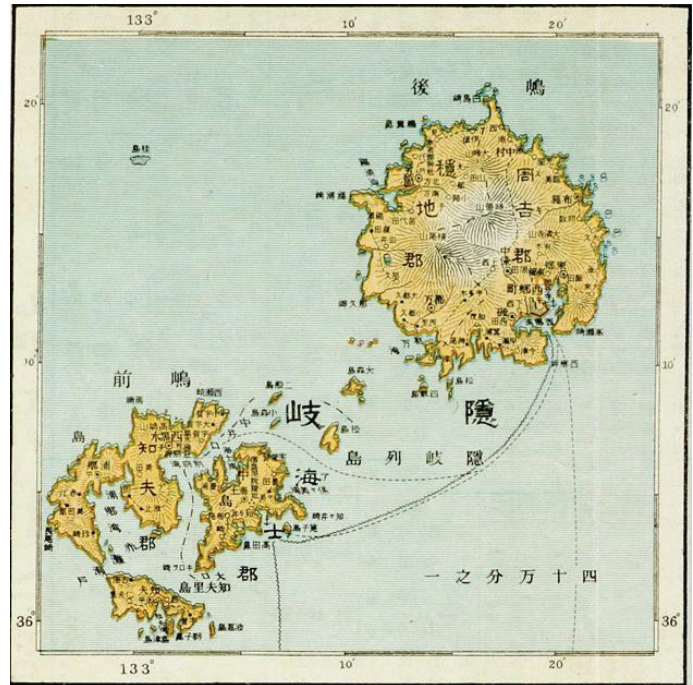
14

시마네현전도(島根縣全圖)

일본, 안도 리키노스케(安藤力之助), 1929년, 54.0×40.0cm,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Shimaneken Zenzu

Japan, Ando Rikinosuke, 1929, 54.0×40.0cm, Housed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축척 1/40만의 대일본분현지도(大日本分縣地圖) 56장 가운데 하나이다. 1908년 도쿄에서 처음 발행되었고, 1929년에 정정(訂正)하였다. 지도에는 시마네 현청의 소재지 마쓰에, 시마네 현의 이정표, 오키섬 등이 삽드로 들어 있다. 1905년 시마네 현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했지만, 이 지도에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This map is one of 56 Local Maps of Japan on a scale of 1:400,000. It was first published in Tokyo in 1908, then revised in 1929. In the map, Matsue, the capital city of Shimane Prefecture, the milestones of the Prefecture and Oki Islands were included as insets. However, not a sign of Dokdo appears in this map, although the Prefectural government illegally incorporated Dokdo into the Shimane Prefecture in 1905.



울릉도 사동 새각단에서 바라본 독도

2008.11.22.

Dokdo as seen from Saegakdan, Sadong, Ulleungdo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 시동 깎기등에서 바라본 독도

2008.10.12.

Dokdo as seen from Kkak-kki-deung, Sadong, Ulleungd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